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2. 2 | No. 149

# 차 례

##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	5
(1) 세계 경제 .....	5
(2) 국제금융·유가 .....	6
2. 주요국 산업 동향 .....	7
(1) 중국 .....	7
(2) 미국 .....	11
(3) 일본 .....	12
(4) 유로존 .....	14

## II.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	16
2. 고용 .....	18
3. 물가 .....	19
4. 금융·외환 .....	20
5. 수출입 .....	22

##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	23
(1) 총괄 .....	23
(2) 자동차 .....	26
(3) 조선 .....	28
(4) 일반기계 .....	29
(5) 철강 .....	31
(6) 정유 .....	32
(7) 석유화학 .....	33

(8) 섬유 .....	35
(9) 가전 .....	36
(10) 무선통신기기 .....	37
(11) 반도체 .....	39
(12) 디스플레이 .....	40
<b>2. 서비스산업 .....</b>	<b>41</b>
(1) 생산 .....	41
(2) 고용 .....	44
(3) 서비스수지 .....	46

#### IV. 지역별 동향

<b>1. 개관 .....</b>	<b>48</b>
(1) 생산 .....	48
(2) 고용 .....	49
(3) 수출 .....	51
<b>2. 지역별 동향 .....</b>	<b>52</b>
(1) 수도권 .....	52
(2) 충청권 .....	54
(3) 호남권 .....	56
(4) 대경권 .....	58
(5) 동남권 .....	59
(6) 강원·제주권 .....	61

#### V. 산업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국내 정유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	63
----------------------------------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2. 2 | No. 149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215  
**인쇄처** (주)프리비

# I

## 해외 경제 동향

### 01 대외 여건 동향

#### (1) 세계 경제

- 미국은 지난 12월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감소로 전환하였지만, 지난해 4분기 전체로는 소비 증가와 재고 중심의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6.9% 성장하였고, 연간 전체 성장률은 5.7%로 1984년 이후 최고치(5.7%)
- 일본은 11월 생산 확대와 소비 증가세 등 실물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유로존에서도 역내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확대
  -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여파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34개 지역에 걸쳐 2월 20일까지 중점조치를 단행하고,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증
- 중국은 지난 12월 생산 증가세가 전월에 이어 확대된 반면, 소비와 수출 등 수요 지표들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문 간 혼조세를 반영
  -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4.0%(2020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3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인 반면에, 연간 전체 성장률은 8.1%로서 2011년 이후 최고치

##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실질GDP <sup>1)</sup>	-3.4	5.7	6.7	2.3	6.9				
	산업생산	-7.2	5.5	1.6	0.9	1.0	-1.0	1.2	0.7	-0.1
	소매판매	0.3	19.3	6.5	-0.5	2.1	0.7	1.8	0.2	-1.9
	무역수지 <sup>2)</sup>	-676.7	-859.1	-205.2	-223.1	-226.6	-80.8	-66.5	-79.3	-80.7
일본	실질GDP	-4.5	-	0.5	-0.9	-				
	광공업생산	-10.6	-	1.2	-3.7	-	-5.4	1.8	7.0	-
	소매판매	-3.5	-	-2.1	1.2	-	2.8	1.0	1.3	-
	무역수지 <sup>2)</sup>	563	-	434	-276	-	-630	-74	-956	-
유로	실질GDP	-6.5	-	2.2	2.2	-				
	산업생산	-7.7	-	-0.2	-0.8	-	-0.9	-1.3	2.2	-
	소매판매	-1.0	-	3.9	0.9	-	0.0	0.3	1.0	-
	무역수지 <sup>2)</sup>	234.0	-	37.1	27.5	-	5.8	1.8	-1.3	-
중국 <sup>3)</sup>	실질GDP	2.3	8.1	7.9	4.9	4.0				
	산업생산	2.8	9.6	9.0	4.9	3.9	3.1	3.5	3.8	4.3
	소매판매	-3.9	12.5	14.1	5.1	3.5	4.4	4.9	3.9	1.9
	수출(달러화)	3.6	29.9	30.6	24.2	23.0	28.0	26.9	21.7	20.9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2) 국제금융·유가

### □ 달러화 약세 전환 및 유가 강보합세

- 달러화는 올 1월 중 연준의 조기 긴축에 따른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제금리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2월 들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전환 시사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 전환
  - 달러화 지수는 1월 말 한때 2020년 6월 말 이후 최고치(1월 27일 97.2)로 상승

##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1								2022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0일
엔/달러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3.17	115.08	115.11	116.01
달러/유로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338	1.1370	1.1235	1.1428
미 국채 (10년 만기)	1.59	1.47	1.22	1.31	1.49	1.55	1.44	1.51	1.78	2.03
WTI유	66.3	73.5	74.0	68.5	75.0	83.6	66.2	77.0	88.2	89.9
두바이유	66.6	73.0	73.3	69.4	75.9	81.9	71.0	76.5	87.5	91.8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유가는 연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와 카자흐스탄 등지에서의 원유생산 차질 우려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2월 들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전환 등으로 인해 강보합
  - WTI유와 두바이유는 1월 중 14%대 상승, 2월 초 2%와 5% 추가 상승

## 02 주요국 산업 동향

## (1) 중국

□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4.3%로 소폭 회복

- 지난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3%로, 9월부터 3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가 소폭 회복세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7.3%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8%
-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민영기업과 주식제기업이 소폭 개선된 반면, 국유기업은 소폭 하락

##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10월	11월	12월
공업 전체		5.7	-1.3	2.8	15.9	3.5	3.8	4.3
섬유	방직	-5.9	-25.9	-15.7	11.8	0.3	2.8	0.8
	화학섬유	12.5	-1.0	3.4	17.1	-4.9	-2.7	-2.8
화학	에틸렌	9.4	-0.8	4.9	26.6	4.0	2.7	2.5
	플라스틱원료	9.3	2.8	7.0	12.3	-3.9	0.0	3.0
	플라스틱제품	3.9	-9.6	-6.4	18.2	-1.1	-1.2	2.4
철강	선철	5.3	2.2	4.3	4.0	-19.4	-16.6	-5.4
	조강	8.3	1.4	5.2	11.8	-23.3	-22.0	-6.8
	강재	9.8	2.7	7.7	13.9	-14.9	-14.7	-5.2
비철금속		3.5	2.9	5.5	11.0	-2.6	-0.7	-3.8
기계	금속절삭기계	-18.8	-7.7	5.9	45.6	4.8	2.1	5.8
	소형 트랙터	3.0	-29.7	-47.2	27.6	-6.7	-11.1	-10.5
	대기오염방지설비	-13.7	-22.5	-21.1	25.6	11.5	-14.8	17.3
	발전설비	-15.0	16.7	30.3	17.4	-5.7	1.9	9.0
자동차		-8.0	-16.5	-1.4	26.4	-8.3	-7.1	3.4
조선		9.3	-10.4	-8.2	19.1	41.1	9.6	-22.3
전자	세탁기	9.8	-7.2	3.9	33.5	-8.7	-1.5	-2.7
	냉장고	8.1	-6.9	8.4	18.8	-13.5	-10.3	-5.2
	에어컨	6.5	-16.4	-8.3	21.0	6.0	3.7	-1.7
	컬러TV	-2.9	-2.5	4.7	5.6	-5.5	-7.5	4.4
	컴퓨터	6.9	5.2	16.0	40.6	-2.1	7.2	3.9
	반도체	7.2	16.4	16.2	48.1	22.2	11.9	1.9
	휴대폰	-6.0	-13.3	-9.5	21.1	-0.9	3.9	2.8
서비스	화물운수	5.5	-7.8	-0.5	24.6	2.7	0.2	2.4
	여객운수	-1.9	-54.8	-45.1	11.1	-32.2	-41.1	-33.6
	우편 <sup>3)</sup>	31.5	22.4	29.7	34.4	18.7	16.7	11.9
	통신 <sup>3)</sup>	62.9	28.3	28.1	28.3	28.3	25.0	28.0
	소매업	7.9	-8.7	-2.3	20.6	5.2	4.8	2.3
	음식숙박업	9.4	-32.8	-16.6	48.6	2.0	-2.7	-2.2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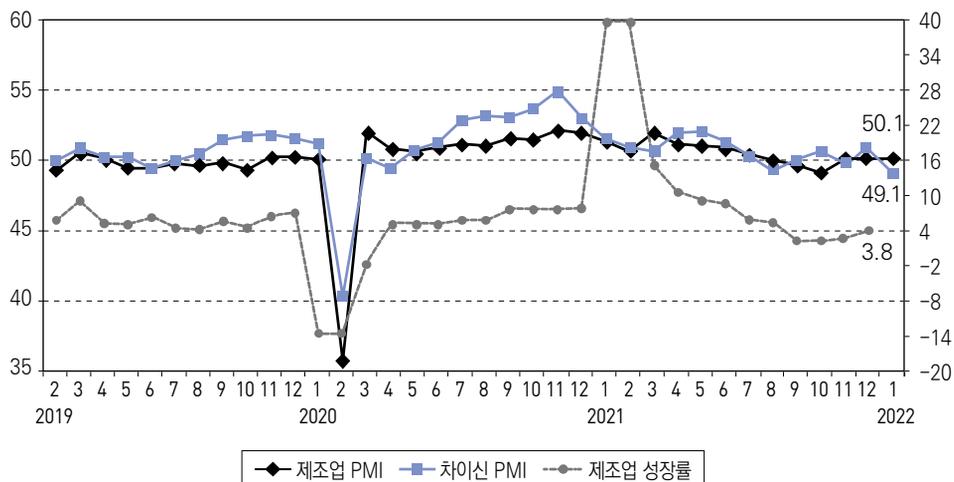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국유기업은 전년동월비 3.3%, 민영기업은 4.7%, 주식제기업은 4.7% 수준
- 지난 12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화학과 자동차가 전년동월비 증가
  - 섬유업종은 화학섬유가 9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2.8%)
  - 화학업종은 에틸렌(2.5%), 플라스틱원료(3.0%), 플라스틱제품(2.4%) 모두 증가
  - 철강업종은 선철(-5.4%), 조강(-6.8%), 강재(-5.2%) 모두 4분기 내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 탄소배출목표치 미달 및 이에 따른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것으로 판단
  - 비철금속도 4분기 내내 감소(12월, -3.8%)
  - 소형트랙터를 제외한 기계업종은 증가한 가운데 금속절삭기계는 5.8%, 발전설비 9.0%, 대기오염방지설비는 17.3%의 큰 폭 증가
  - 자동차는 상반기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나, 9월부터 11월까지 감소하였다가 12월에 다시 3.4% 증가
  - 조선업은 지난해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12월에는 22.3% 급감
  - 전자업종은 컬러TV(4.4%), 컴퓨터(3.9%), 휴대폰(2.8%), 반도체(1.9%)가 증가한 반면, 에어컨(-1.7%), 세탁기(-2.7%), 냉장고(-5.2%)는 감소
-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의 여파로 12월에도 여객운수가 전년동월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우편과 통신은 크게 증가
  - 화물운수(2.4%)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여객운수(-33.6%)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12월 우편과 통신은 각각 11.9%, 28.0%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소매업은 2.3%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은 2.2% 감소
- 1월 제조업 관방구매관리자지수 50.1, 차이신구매관리자지수는 49.1로 경기전망 다시 악화
- 올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다시 하락한 50.1로 여전히 불투명한 경기 전망
  - 생산지수는 0.5포인트 하락한 50.9

- 신규주문지수는 0.4포인트 하락한 49.3
  - 부품재고지수는 0.1포인트 하락한 49.1
  - 종업원지수는 0.2포인트 하락한 48.9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0.7포인트 하락한 47.6
- 제조업 PMI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오히려 개선된 반면, 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은 하락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1.6으로 뚜렷한 개선
    - 중형기업은 0.8포인트 하락한 50.5
    - 소형기업은 0.5포인트 하락한 46.0
  - 올 1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9.1로 다시 임계치 밑으로 하락
    - 최근 1년 전반적으로 신규 주문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2020년 5월 이후 신규 수출주문도 감소세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신규 비즈니스가 감소한 까닭으로 1월의 구매가 감소하였고 생산부문과 완제품 재고도 3개월 만에 감소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물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배송시간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길어진 상태이지만 지난 12월부터 시장개선 전망이 낙관적
- 취업률이 낮아진 가운데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나서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구인난도 함께 경험 중
-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도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편

## (2) 미국

### □ 12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3.9% 증가

- 지난 12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며 4분기 전체 증가 기록
  - 제조업 생산을 견인한 업종은 1차 금속(9.2%), 항공우주(9.2%), 기계(8.4%), 정유(8.0%) 등임.
  - 4분기 제조업 생산도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증가하며 전년동기비 4.5% 증가
  - 4분기에 증가폭이 큰 업종은 정유(10.4%), 1차 금속(9.5%), 항공우주(9.4%) 등임.
  - 반면 자동차·부품은 12월에 5.7% 감소, 4분기 전체로 3.9% 감소
- 지난해 연간 제조업 생산은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7% 증가 기록
  -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통신기기는 지난해에 이어 호조가 지속되면서 각각 12.4%, 11.2%, 7.5% 증가
  - 지난해 크게 감소하였던 항공우주, 자동차·부품, 1차 금속, 정유는 회복이 두드러짐.
  - 항공우주는 16.7% 증가하였고, 1차 금속은 12.9% 증가하며 지난해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

###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제조업 전체	-6.4	6.7	-0.1	17.6	6.0	4.5	5.0	3.9
식품	-2.6	2.4	-0.5	7.5	1.6	1.2	1.1	1.3
제지	-4.3	0.8	-5.8	3.8	4.9	0.9	1.2	0.6
정유	-13.0	9.2	-7.5	23.7	12.5	10.4	12.7	8.0
화학	-2.6	5.4	-3.4	10.5	7.7	7.1	7.4	7.2
플라스틱·고무	-7.6	6.3	-0.8	18.4	5.3	4.2	6.0	3.1
1차 금속	-13.4	12.9	-3.5	33.1	17.7	9.5	8.2	9.2
금속제품	-7.6	4.0	-3.5	9.4	5.9	5.0	5.3	4.2
기계	-6.1	10.8	3.3	23.1	10.5	7.6	8.1	8.4
컴퓨터·주변기기	14.1	12.4	14.2	21.1	9.0	6.5	6.4	7.5
통신기기	12.4	7.5	9.9	10.7	8.4	1.4	1.5	0.0
반도체·전자부품	3.7	11.2	10.6	16.1	10.8	7.6	7.7	7.3
자동차·부품	-15.7	9.3	4.8	85.9	-11.3	-3.9	-1.8	-5.7
항공우주	-20.1	16.7	8.5	37.5	16.2	9.4	8.5	9.2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 (3) 일본

#### □ 12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2.7% 증가

- 지난 12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월비 2.7% 증가하면서 4분기 전체로 전년동기비 1.2% 증가
  - 9월과 10월에 각각 2.3% 및 4.1% 감소하였던 제조업 생산이 11월과 12월에 각각 5.1% 및 2.7% 증가
  - 특히 생산기계는 12월에 20.0% 증가하며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
  - 전자부품·기기도 8.6% 증가하며 생산기계와 함께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
  - 반면 수송기기는 5.4% 감소

##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제조업 전체	-10.3	5.8	-1.1	19.9	5.7	1.2	5.1	2.7
강철·비철금속	-14.6	12.9	-0.4	34.4	19.9	4.1	6.7	3.8
금속제품	-11.5	4.2	-0.6	15.9	5.0	-1.9	1.4	-0.7
생산기계	-10.3	23.0	11.3	25.6	32.8	24.1	27.8	20.0
일반용·업무용 기계	-12.1	10.7	-1.2	22.9	19.2	5.6	5.9	8.3
전자부품·기기	1.4	15.2	9.7	23.8	17.2	11.0	15.3	8.6
전기·정보통신기기	-9.7	6.6	5.1	21.8	5.8	-3.6	-1.7	-2.4
수송기기	-17.4	-0.7	-7.1	54.5	-13.2	-14.4	-3.9	-5.4
요업·토석제품	-8.5	4.0	-3.9	13.4	8.7	-0.3	1.0	0.6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12.5	3.7	-5.4	9.3	6.8	5.1	7.4	3.7
석탄·석유제품	-15.5	0.1	-11.4	0.9	7.6	5.7	4.1	4.4
플라스틱제품	-6.3	3.2	-0.7	14.8	1.7	-1.7	2.7	1.5
펄프·종이·가공품	-9.7	3.2	-5.0	9.2	7.5	2.0	1.3	2.5
식품·담배	-3.0	-	-2.9	0.7	-2.2	-	4.8	-
기타 제조업	-13.2	5.2	-5.3	14.9	10.3	3.1	5.4	2.6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지난해 연간 제조업 생산은 대부분 업종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8% 증가
  - 생산기계와 전자부품·기기, 강철·비금속, 일반용·업무용기계 등이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
  - 생산기계는 23.0% 증가
  - 전자부품·기기가 15.2% 증가하고, 강철·비금속이 12.9% 증가하였으며, 일반용·업무용 기계 10.7% 증가
  - 반면 수송기기는 0.7% 감소하며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실적이 악화된 업종

#### (4) 유로존<sup>1)</sup>

□ 12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7% 증가

● 지난 12월 유로존의 생산증가율은 정유, 기계, 섬유 등의 생산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1.7% 증가

- 정유는 코크스(7.1%) 및 정유제품(9.4%)이 크게 증가하며 9.2% 증가

####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제조업 전체	-9.1	8.5	6.8	-0.1	0.3	-1.9	1.7
식음료	-2.4	3.3	3.4	3.8	2.7	7.4	1.2
섬유	-12.8	10.0	6.1	2.3	1.8	3.2	2.0
정유	-10.1	3.5	7.4	9.2	11.0	7.3	9.2
화학	-2.5	5.6	5.9	0.9	1.0	1.4	0.3
고무·플라스틱	-8.6	8.3	3.1	-2.1	-2.1	-2.0	-2.3
1차 금속	-13.1	11.7	9.6	2.4	3.5	2.4	0.9
조립금속	-12.0	11.3	8.1	1.3	2.5	2.9	-2.0
기계	-12.7	12.1	13.2	7.8	9.5	8.9	5.1
통신기기	-14.2	9.7	5.8	-1.9	-2.0	-3.3	-0.7
전자부품	1.8	10.4	10.6	2.2	5.5	1.5	-0.3
자동차	-23.8	-2.0	-20.3	-20.3	-25.1	-21.2	-12.8
조선	-8.1	9.0	0.6	4.0	7.5	0.2	4.1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기계는 농업 및 임업용 기계(9.1%), 가공 공작기계(8.8%) 등 일반목적용 기계(-4.2%)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확대되며 5.1% 증가
- 반면,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고무가 4.4%, 플라스틱이 2.1%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률 (-2.3%) 기록
- 자동차 역시 완성차(-14.8%) 및 부품(-12.5%)의 큰 폭 감소로 인해 12.8% 감소
- 지난해 연간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증가하며 전년 대비 8.5% 증가

## II

# 국내 실물 경제

## 01 국내 경기

□ 12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1.8% 증가, 소비 반등, 투자 축소

- 지난 12월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이 소폭 감소함에도, 광공업이 전월과 달리 상당폭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비 1.8% 증가
  - 광공업은 반도체(전월비 8.0%)와 자동차(7.3%) 등이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5.3%나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11.8%)과 협회·수리·개인(-2.9%)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0.4% 감소
  - 소매판매는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전월비 -0.6%)가 감소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등 내구재(3.9%)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0%)가 동반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비 2.0% 증가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전월비 2.7%) 증가에도 기계류(-1.3%)가 감소하면서 전월비 0.4% 감소하였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20.2%) 및 건축(3.6%)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하면서 7.4%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해 전월비 0.8%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코스피, 수출입물가 비율 등이 하락한 반면에, 기계류 내수출하지수가 상승해 전월비 0.2% 상승

##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0.9*	4.0**	6.0* (0.8*)	4.0* (0.3*)	4.1** (1.1**)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5.0*	3.6**	3.7* (3.6*)	3.3* (-0.2*)	6.3** (1.7**)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7.1*	8.3**	12.8* (1.1*)	4.2* (-2.4*)	4.1**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0.4*	-1.5**	-1.2* (-2.3*)	-1.2* (-3.5*)	-1.7** (2.9**)	-	-	-	-
전산업생산지수	-1.2	-	7.2 (0.4)	3.9 (0.5)	5.5* (1.6*)	1.4 (1.1)	4.7 (-1.9)	5.4* (3.3*)	6.5* (1.8*)
광공업생산지수	-0.4	-	12.7 (-1.2)	5.1 (0.5)	5.7* (1.0*)	-1.9 (-1.1)	4.5 (-2.9)	6.3* (5.3*)	6.2* (4.3*)
제조업생산지수	-0.3	-	13.2 (-1.2)	5.1 (0.4)	6.0* (1.3*)	-2.0 (-1.3)	4.6 (-2.9)	6.4* (5.6*)	6.8* (4.8*)
서비스업생산지수	-2.0	-	5.7 (1.7)	3.9 (0.9)	5.4* (1.4*)	3.4 (1.4)	5.0 (-0.4)	5.4* (2.1*)	5.8* (-0.4*)
소매판매액지수	-0.2	-	4.4 (2.7)	5.0 (0.1)	6.2* (0.8*)	3.6 (2.4)	7.4 (0.2)	4.6* (-2.0*)	6.5* (2.0*)
설비투자지수	6.0	-	12.7 (0.7)	5.8 (-2.5)	5.8* (-1.2*)	-5.3 (-2.1)	3.0 (-5.0)	9.2* (10.9*)	5.0* (-0.4*)
건설기성액	-4.1	-	-5.3 (-2.4)	-6.1 (-1.8)	-1.4* (4.6*)	-9.4 (2.3)	0.0 (-1.1)	-6.0* (1.9*)	1.5* (7.4*)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12.3 98.8	-	116.6 101.2	117.1 101.3	117.8* 101.5*	117.2 101.2	117.1* 101.0*	117.7* 101.4*	118.7* 102.1*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19.5 99.6	-	127.1 102.5	128.2 102.4	128.2* 101.4*	128.2 102.1	128.1* 101.7*	128.1* 101.4*	128.3* 101.2*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02 고용

### □ 12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9% 증가

- 지난 12월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만에 상승(2.0% → 2.9%,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
  - 제조업은 전월보다 증가율이 둔화(1.2% → 0.8%)
  - 농림·어업은 증가율이 전월보다 더 높아지고(2.1% → 2.7%), SOC·기타서비스업도 증가세가 확대(2.2% → 3.4%)
  - 건설업도 증가율이 전월보다 확대(0.8% → 1.9%)되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은 감소폭이 현저하게 축소(-3.7% → -0.2%)

###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산업	26,904	27,273	27,467	27,645	27,611	27,603	27,683	27,741	27,795	27,298
전년동기비	-0.8	1.4	2.3	2.1	2.4	1.9	2.5	2.4	2.0	2.9
농림·어업	3.6	0.9	0.2	1.6	2.0	2.4	1.4	1.3	2.1	2.7
제조업	-1.2	-0.2	0.1	-0.8	0.6	-1.7	-0.8	-0.3	1.2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0	1.7	2.9	2.8	2.9	2.6	3.2	3.0	2.2	3.4
건설업	-0.2	3.7	7.0	4.5	1.7	6.1	2.7	2.5	0.8	1.9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3	-3.5	-2.4	-2.6	-1.9	-2.7	-1.5	-1.7	-3.7	-0.2
전기·운수·통신·금융	0.7	5.6	5.2	6.9	8.3	6.4	8.3	9.0	8.5	7.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0.9	3.0	4.3	4.1	4.0	3.7	4.3	3.9	3.8	4.3
실업률(계절조정, %)	4.0	3.6	3.7	3.0	3.4	2.8	3.0	3.2	3.1	3.8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감소세 (-6.3% → -5.0%)가 이어지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 (11.6% → 7.6%)된 영향에도 교육서비스(5.9% → 6.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7.4% → 7.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1.8% → 5.0%) 등에서 증가세가 유지된 데 힘입어 전체 증가율이 더욱 상승(3.8% → 4.3%)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8%로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03 물가

□ 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상승, 전년동월비 3.6% 상승

- 올 1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1.2%), 음식·숙박(1.0%), 보건(1.1%), 주택·수도·전기·연료(0.3%), 교육(0.3%), 주류·담배(0.3%) 등 다수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3.6%)

####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0.5	2.5	1.4 (1.3)	2.5 (0.5)	2.5 (0.7)	3.5 (1.0)	2.6 (0.5)	2.4 (0.4)	3.2 (0.2)	3.8 (0.5)	3.7 (0.2)	3.6 (0.6)
근원물가	0.7	1.8	1.3 (0.7)	1.5 (0.6)	1.9 (0.5)	2.6 (0.9)	1.9 (0.3)	2.0 (0.2)	2.8 (0.3)	2.4 (0.2)	2.7 (0.4)	3.0 (0.5)

자료: 통계청.

주: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 04 금융·외환

□ 12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감소로 전환, 2월 초(2월 3일~10일) 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 지난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감소로 전환(2021년 11월 +9조 1,000억 원 → 2021년 12월 -2조 8,000억 원, 대기업 -1조 7,000억 원, 중소기업 -1조 원)
  - 대기업 대출은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지만 감소폭은 소폭에 그쳤고, 중소기업 대출은 시설자금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연말 운전자금 일시상환 등의 요인으로 크게 줄어들며 감소로 전환
  - CP는 발행규모가 전월에 비하여 상당폭 축소되면서 순상환으로 전환되었고, 회사채는 투자기관의 연말 북클로징 등으로 지난달에 이어 순상환 기조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일부기업의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발행규모가 축소
- 지난 12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2021년 11월 +2조 9,000억 원 → 2021년 12월 -2,000억 원)

### 기업 자금조달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19		2020		2021				2021년 12월 말 잔액
	1~12월	12월	1~12월	12월	1~12월	10월	11월	12월	
은행 원화대출 (대기업)	44.9	-6.2	107.4	-5.6	89.3	10.3	9.1	-2.8	1,065.7
(중소기업)	47.3	-3.9	87.9	-0.6	81.8	8.0	6.4	-1.0	886.4
<개인사업자>	24.7	0.8	47.5	1.9	37.0	2.6	2.7	1.1	423.0
	-2.4	-2.2	19.5	-5.0	7.5	2.3	2.8	-1.7	179.3
회사채순발행	15.8	-0.6	15.5	0.3	16.2	0.2	-0.2	-0.8	..
CP 순발행	0.3	-5.6	2.3	-0.7	4.1	-1.0	0.7	-3.0	32.7
주식발행	6.3	0.7	11.0	3.0	28.9	1.1	2.3	0.6	..
은행 가계대출	60.7	7.2	100.6	6.7	71.8	5.2	2.9	-0.2	1,060.7
주택담보대출	45.7	5.6	68.3	6.3	56.9	4.7	2.4	2.0	778.8
기타 대출	15.1	1.6	32.4	0.4	14.7	0.5	0.5	-2.2	280.7

자료: 한국은행.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매매거래 둔화와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되었고, 기타 대출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지속과 대출금리 상승, 연말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며 감소로 전환
- 국고채(3년) 금리는 국내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긴축 정책 강화 등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확산, 한은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2월 3일 2.16% → 2월 10일 2.26%, 1.0%포인트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물가 급등에 따른 연준의 긴축 정책 가속 우려가 확대되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과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세 등으로 하락(2월 3일 1,206.4원 → 2월 10일 1,196.5원, 9.9원 하락)

###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0		2021				2022	
	3/4	4/4	1/4	2/4	3/4	4/4	1월	2월 10일
국고채(3년)	0.85	0.98	1.13	1.45	1.59	1.80	2.19	2.26
회사채(3년, AA-)	2.19	2.21	2.06	1.97	2.05	2.42	2.77	2.85
CD(91일)	0.63	0.66	0.75	0.68	1.04	1.29	1.50	1.50
CP(91일)	1.11	1.09	1.00	0.97	1.18	1.56	1.64	1.64
원/달러	1,169.5	1,086.3	1,131.8	1,126.1	1,184.0	1,188.8	1,205.5	1,196.5
원/100엔	1,112.1	1,054.3	1,027.3	1,022.1	1,058.2	1,030.2	1,042.8	1,035.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증가 기준.

## 05 수출입

□ 1월 무역수지, 49억 달러 적자

● 올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2% 증가한 553억 달러, 수입은 37.4% 증가한 602억 달러,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수출은 10개 주력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국·EU·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1월 최초 500억 달러를 돌파

- 수입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차 상품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

\*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컴퓨터,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 원유 도입단가(83.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85.5%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0.3% 증가하면서 수입액은 86.2% 증가한 71억 달러를 기록

###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5,125 (-5.5)	6,444 (25.7)	1,567 (42.1)	1,645 (26.5)	1,767 (24.6)	559 (16.9)	557 (24.2)	604 (31.9)	607 (18.3)	553 (15.2)
수입	4,676 (-7.1)	6,150 (31.5)	1,492 (37.7)	1,569 (37.5)	1,724 (39.4)	516 (31.1)	538 (37.7)	574 (43.6)	612 (37.1)	602 (35.5)
무역수지	449	294	75	76	44	43	18	30	-5	-49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1월 실적은 잠정치.

### Ⅲ

## 주요 산업별 동향

### 01 제조업

#### (1) 총괄

□ 12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6.8% 증가, 전월비 4.8% 증가

- 지난 12월 제조업 생산은 금속가공(-5.4%), 전자부품(-4.2%), 고무·플라스틱(-1.8%) 등의 업종이 줄어들었지만, 반도체(31.5%), 자동차(8.0%), 화학제품(4.7%) 등의 업종이 상당폭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 6.8%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9.0%), 중공업(7.6%)과 경공업(3.6%) 모두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전월비 기준으로는 담배(-14.5%), 의료정밀광학(-3.6%), 의약품(-2.9%)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지만, 전기장비(9.6%), 반도체(8.0%), 자동차(7.3%) 등의 업종이 늘어나면서 전월비 4.8%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하였지만, 금속가공, 전자부품, 고무·플라스틱, 음료 등의 업종이 줄어들면서 전년동월비 0.7% 감소, 전월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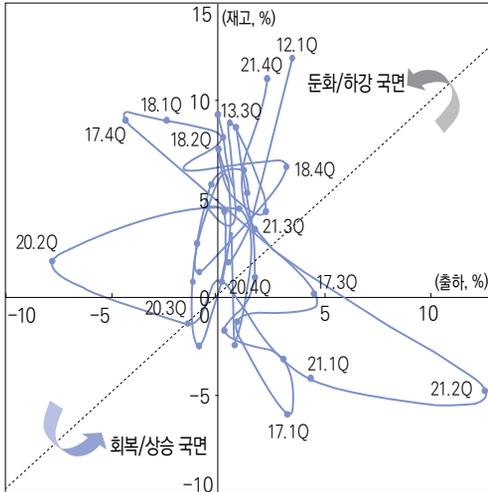
##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0	2021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6.3	113.6	111.8	119.3	113.9	118.5	125.4	-
전년동기비 증가율	-	-0.4	6.9	5.1	5.7	4.5	6.3	6.2	4.3
제조업(원지수)	9,484.5	106.3	113.8	112.1	119.7	114.6	118.9	125.5	-
전년동기비 증가율	-	-0.3	7.1	5.1	6.0	4.6	6.4	6.8	4.8
섬유	135.0	-10.5	6.4	4.6	3.8	0.1	4.9	6.2	3.4
화학	883.8	-3.0	7.5	7.8	4.6	2.0	7.1	4.7	4.0
철강	454.3	-6.3	6.0	12.0	1.8	2.4	3.0	-0.2	-1.9
반도체	1,285.6	22.7	29.7	33.9	34.2	37.7	33.9	31.5	8.0
컴퓨터·주변장치	31.3	-7.9	-1.6	-6.5	-5.2	-12.0	3.7	-6.3	-2.1
통신·방송장비	131.5	-11.3	21.1	18.7	4.2	9.2	8.8	-4.8	14.9
의료·정밀·광학	218.0	3.9	18.8	14.8	12.6	8.8	20.0	9.4	-3.6
기계장비	819.2	3.6	10.1	6.8	5.7	7.7	6.2	3.9	4.1
자동차	981.6	-10.0	4.6	-8.7	-3.3	-13.3	-3.9	8.0	7.3
조선	206.3	8.6	-16.9	-22.7	-11.7	-13.7	-12.4	-9.4	2.4
중공업	-	0.6	8.3	6.6	6.9	5.5	7.2	7.6	5.3
경공업	-	-4.0	1.8	-1.7	2.1	-0.1	2.7	3.6	2.3
제조업ICT	-	11.9	18.9	20.9	20.2	21.5	20.1	19.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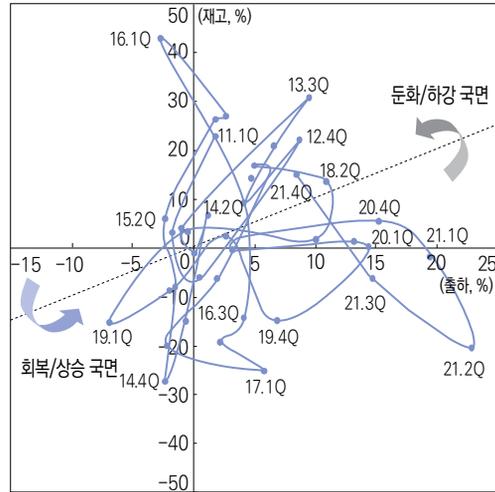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1분기 ~ 2021.4분기)



자료: 통계청.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1분기 ~ 2021.4분기)



자료: 통계청.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2.6%로 전월보다 2.9%포인트 하락하였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의 증가폭(+2.7% → +0.5%,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이 축소되었으나, 재고의 증가폭(3.3% → 11.0%)은 확대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8.7%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상승

□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

- 13대 품목 중 반도체·철강·일반기계 등 10개 품목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
  - 반도체(24.2%), 석유화학(40.0%), 철강(50.1%)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두 자릿수 증가, 특히 석유제품(88.4%)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증가세 시현
  - 다만, 선박류는 수주-인도 간 시차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

## 주요 품목별 수출 증기를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자동차	-13.1	24.2	74.8	6.5	4.9	-6.1	-4.7	3.3	17.3	2.3	
자동차부품	-17.3	22.2	123.1	14.8	-1.4	-5.1	-1.2	-2.2	-1.0	14.2	
선박류	-2.0	16.4	11.9	-1.4	22.9	-40.4	6.4	237.7	-49.0	-77.9	
일반기계	-8.9	10.8	21.2	15.6	9.9	7.7	12.6	11.6	6.1	14.1	
철강	-14.5	37.0	50.4	45.1	47.7	41.6	48.5	45.7	48.9	50.1	
석유화학	-16.4	54.8	80.3	64.1	54.1	52.3	69.2	62.9	34.2	40.0	
석유제품	-40.6	57.7	112.6	71.6	113.1	84.8	148.1	121.7	79.4	88.4	
섬유	-13.3	14.0	46.1	9.9	16.8	-3.8	21.7	16.9	12.6	22.3	
가전	0.7	24.0	66.5	11.7	15.3	-4.1	13.7	20.9	11.6	21.2	
무선통신기기	-6.4	22.9	38.5	25.7	12.1	19.6	15.5	16.4	4.8	1.9	
컴퓨터	57.2	25.2	8.9	34.0	56.5	49.4	52.6	73.5	44.7	49.4	
반도체	5.6	29.0	29.7	36.3	34.6	28.2	28.8	40.1	35.1	24.2	
디스플레이	-12.2	18.9	36.0	25.2	5.8	17.3	5.3	10.4	2.0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월 실적은 잠정치.

## (2) 자동차

### □ 12월 생산, 증가로 전환

- 올 1월 내수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공급량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비 19.9% 감소
  - 국산차의 경우 일부 업체의 설비 공사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하며 판매 대수가 19.4% 감소
  - 수입차는 차량용 반도체 조달 문제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22.2% 감소
- 올 1월 수출은 전기차 확대에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전기차는 53.0% 증가하며 완성차 수출 증가를 견인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0.0	4.6	22.5	-8.7	-3.3	-13.3	-3.9	8.0	-
	생산(전기비)	-	-	-6.7	-4.5	-1.2	-4.8	11.0	7.3	-
	출하	-9.6	5.1	23.3	-6.8	-4.1	-13.1	-4.7	6.2	-
	재고	9.2	3.2	3.3	0.3	3.2	-0.6	0.7	3.2	-
	가동률	-9.1	1.2	17.4	-12.3	-6.3	-16.3	-5.8	3.9	-
	내수판매동향	5.7	-9.0	-12.9	-15.0	-14.8	-21.4	-16.7	-6.5	-19.9
교역 동향	수출	-14.5	23.6	88.3	9.2	2.8	-3.6	1.5	10.5	6.0
	수입	7.3	10.2	37.2	13.2	-20.0	-17.9	-20.8	-21.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자동차부품은 해외생산 차량의 판매 확대로 14.2% 증가하며 그동안 지속되던 감소세를 마감
- 지난 12월 생산은 그간의 감소세를 마감하며 증가로 전환
  - 생산과 출하는 2021년 9월부터 지속되던 감소세를 마감하고 각각 8.0%, 6.2% 증가하였으며, 가동률도 3.9% 상승
  - 전월비 생산은 7.3% 증가하며 부품공급 문제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
- 지난해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기차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생산과 수출이 증가
  - 친환경 자동차 수출 호조가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수출이 23.6% 증가하였고, 생산도 4.6% 증가
  - 내수는 제작년 역대 최대 내수 실적의 기저효과로 감소

### (3) 조선

#### □ 생산지표 침체 완화, 수출은 큰 폭 감소 지속

- 지난해 선박 발주는 전년 대비 99.3% 증가한 4,789만 CGT를 기록했으나, IMF는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소폭 하향한 4.4%로 수정했고, 공급망 불안, 에너지 가격 인상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여 발주 환경은 악화
  - 지난해 국내 수주량은 LNG운반선, 컨테이너선의 대량 수주에 힘입어 101.6% 증가한 1,754만 CGT를 확보하여 2,357만 CGT를 수주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 향후 건조 일감인 수주잔량은 12월 말 기준 약 2,950만 CGT로 전월비 20만 CGT가 증가하여 충분한 생산물량을 확보했고, 지난해 건조량은 19.2% 증가한 1,051만 CGT로 나타나 중국의 1,362만 CGT에 이어 2위를 기록
  -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2월 4일 기준 155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1월 한때 1,296까지 하락했던 BDI는 2월 8일 기준 1,503으로 소폭 회복, SCFI는 1월 28일 기준 5,010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생산, 출하, 가동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기록 중이나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

####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6	-16.9	-17.6	-22.7	-11.7	-13.7	-12.4	-9.4	-
	생산(전기비)	-	-	-4.0	-2.7	7.2	0.5	4.5	2.4	-
	출하	7.2	-16.5	-18.1	-21.6	-9.3	-11.1	-9.4	-7.7	-
	가동률	21.1	-12.7	-11.0	-19.3	-11.1	-11.1	-12.7	-9.5	-
교역 동향	수출	-2.0	16.4	11.9	-1.4	22.9	6.4	237.7	-49.0	-77.9
	수입	44.4	6.2	-5.6	43.1	-11.4	-36.2	5.1	8.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 올 1월 수출은 고가의 해양플랜트 출항(Sail Away)이 없고 LNG운반선을 비롯한 일반 상선의 인도도 크게 줄어들면서 급격히 감소
  - 전년동월에는 다수의 LNG운반선 외에도 고가의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가 인도되면서 수출액이 컸으나, 지난 1월에는 해양플랜트가 없고 LNG운반선을 비롯한 선박 인도가 적어 전년동월비 77.9% 감소
- 지난 12월 수입은 일본으로부터 유조선과 벌크선, 베트남으로부터 유조선의 반입이 증가했고, 중국과 노르웨이로부터 선박용 부품, 일본과 핀란드로부터 선박용 디젤엔진이 늘어 소폭 증가
  -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선박의 반입이 증가했고, 선박용 부품 수입이 54.3%, 선박용 디젤엔진의 수입도 37.4%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은 전년동월비 8.3% 증가

#### (4) 일반기계

##### □ 생산, 수출 동반 호조세 지속

- 지난 12월 생산은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3.9% 및 전월비 4.1%의 양호한 증가세 유지
  - 내수 출하가 전년동월비 5.1%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설비투자과 국내 기계수주는 수요산업 업황 호조로 견조한 증가세 유지
    - \* 기계류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10월) -1.0 → (11월) 1.1 → (12월) -5.1
    - \*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10월) -4.0 → (11월) 11.2 → (12월) 6.9
    - \*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10월) 17.0 → (11월) 21.5 → (12월) 39.6
  - 재고율(재고/출하)은 109.9%로, 출하 대비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월비 3.6%포인트 상승
    - \* 재고율(%): (2021년 10월) 112.2 → (11월) 106.3 → (12월) 109.9
  - 가동률은 출하와 수출 동반 증가에 따른 양호한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5.0% 상승

##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6	10.1	18.4	6.8	5.7	7.7	6.2	3.9	-
	생산(전기비)			2.1	-1.8	0.6	-4.3	6.1	4.1	-
	출하	1.6	9.9	19.3	6.4	5.7	8.7	5.2	3.8	-
	재고	8.4	14.7	19.3	14.1	14.7	18.3	12.9	14.7	-
	가동률	-6.6	4.5	11.9	5.7	5.5	5.6	6.2	5.0	-
교역 동향	수출	-8.9	10.8	21.2	15.6	9.9	12.6	11.6	6.1	14.1
	수입	-0.2	10.2	14.0	5.6	8.7	6.3	9.6	10.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 올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1% 증가한 46억 800만 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상회
  -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인프라 확대 및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재개로 인한 투자 활성화로 주력 수출 품목인 건설장비와 가공·공작기계류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 지속
  - 미국, 유럽, 중남미, 중동 등 선진국을 포함한 자원수출국, 신흥국 등 대부분 권역으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
    - \* 1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8.1, 44.7%), EU(5.0, 21.3%), 중남미(2.4, 35.5%), 일본(1.9, 12.1%), 중동(1.3, 50.6%)
- 지난 12월 수입은 전방산업 내수 안정화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전년동월비 10.0% 증가한 28억 4,600만 달러 기록
  - 주요 품목별로는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115.5%), 건설광산기계(103.3%), 금속공작기계(57.9%), 운반하역기계(52.0%)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제지인쇄기계(-26.9%), 섬유 및 화학기계(-23.9%) 등은 감소

(5) 철강

□ 생산은 감소세 전환, 수출은 가격요인으로 증가 지속

- 지난 12월 생산은 건설용 강재 수요 둔화로 전년동월비 0.2% 감소
  - 겨울철 비수기 진입에 따른 건설용 강재의 출하 감소와 H형강의 판매가격 약세 지속으로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모두 감소로 전환
  - 선재 및 냉연강판이 자동차 생산 증가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선재는 20.7%나 감소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선재 -20.7%, 열연강판 -7.1%, 기타도금강판 -5.6%, 아연도강판 -5.4%, 냉연강판 9.4%, H형강 0.1%, 중후판 1.4%
- 올 1월 수출은 글로벌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품가격 상승 요인이 더해져 전년동월비 50.1%의 큰 폭 증가
  - 2021년 8월 이후 수출 증가율은 40%를 상회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단가 또한 상승세를 지속, 1월 철강재 톤당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50.4% 상승한 1,461달러를 기록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2	-6.3	13.3	12.0	1.8	2.4	3.0	-0.2	
	생산(전기비)	-	-	1.8	2.5	-3.6	-5.3	3.6	-1.9	
	출하	-2.0	-6.1	17.7	5.5	-1.9	-0.4	-2.6	-2.8	
	재고	-0.3	-16.8	-26.1	-6.0	17.8	0.7	8.7	17.8	
	가동률	-2.1	-6.0	13.7	12.2	1.9	2.4	3.1	0.2	
교역 동향	수출	-8.6	-14.5	50.4	45.1	47.7	48.5	45.7	48.9	50.1
	수입	-0.9	-24.7	40.5	113.1	58.5	76.1	59.6	43.4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1년 1월) 971.5 → (2022년 1월) 1,461(50.4%)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멕시코 129.7%, 미국 128.2%, 태국 14.1%, 베트남 13.3%, 중국 13.0%, 일본 11.4% 등
- 지난 12월 수입은 수입단가 상승 및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43.4% 증가
  - 수입물량은 지난 12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입단가는 톤당 958달러에서 1,301달러까지 상승하며 수입금액 증가를 견인
  - 품목별로는 강관, 중후판, 전기강판, 철근 등의 수입물량 증가가 두드러지며, 지역별로는 말레이시아(168.8%), 러시아(136.5%), 대만(122.0%)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
  -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말레이시아 168.8%, 러시아 136.5%, 대만 122.0%, 일본 70.4%, 미국 51.7%, 중국 7.3% 등

## (6) 정유

### □ 국제 유가 및 정제 마진 상승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 지속

- 지난 12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4.1% 증가
  - 내수는 운송용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및 LPG의 수요 확대로 16.7%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윤활유(30.9%), 휘발유(23.9%), 나프타(23.3%), LPG(19.1%), 경유(12.3%), 항공유(-2.2%), 병커C유(-16.5%), 아스팔트(0.7%)
  - 수출물량은 전반적 운송용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로 11.7%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병커C유(124.4%), 윤활유(101.1%), 휘발유(35.4%), 항공유(18.9%), 경유(1.4%), 나프타(-31.2%), 아스팔트(-9.8%), LPG(-40.1%)
- 올 1월 수출액은 단가와 물량의 동반 증가로 전년동월비 88.4% 증가
  -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정제마진의 가파른 상승세 지속으로 11개월 연속 증가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증가율): (2021년 1월) 54.8 → (2022년 1월) 83.2(51.8%)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5	-6.3	5.7	3.7	4.0	4.2	4.0	4.1	-
	생산(전기비)	-	-	6.2	-0.8	0.3	0.5	-0.4	0.9	-
	출하	-1.4	-7.3	1.1	-0.1	3.5	5.9	1.2	3.7	-
	재고	-10.5	-8.6	-9.9	5.2	10.6	6.4	15.2	10.6	-
	가동률	-2.3	-6.2	5.6	3.8	4.5	4.3	4.3	4.8	-
	내수판매동향	-0.3	-5.8	5.0	9.6	12.6	12.2	8.5	16.7	-
교역 동향	수출	-12.2	-40.6	112.6	71.6	113.1	148.1	121.7	79.4	88.4
	수입	-18.2	-26.1	151.7	129.9	202.9	266.8	193.0	168.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1년 1월) 503.3 → (2022년 1월) 724.1(43.9%)

\* 석유제품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1년 1월) 18.7 → (2022년 1월) 35.2(88.4%)

\* 복합정제 마진(IEA 기준, 달러/배럴): (2021년 1월) 2.5 → (7월) 3.4 → (12월) 8.2

- 지역별로는 대중 수출이 중국 정부의 석유제품 관세 부과 이후 8개월 평균 53.2% 감소한 반면 미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세 지속

\* 지역별 수출 증가율(%): 아세안(209.8), 미국(89.6), 일본(17.6), 중국(-53.2)

(7) 석유화학

□ 전방산업 활성화로 생산 증가세 및 수출액 역대 최대치 달성

● 지난 12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4.7%, 1.6% 증가

- 국제유가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OPEC+의 원유 생산량 유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

-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및 중국 생산시설 가동률 조정으로 에틸렌 가격은 하락세 유지
- 플라스틱과 기초화학제품 수요 증가로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3.1% 상승
- 에틸렌, 부타디엔, 톨루엔 등 주요 기초화학제품과 PP, PS 등 합성수지의 스프레드 악화로 재고는 지속 증가
- 올 1월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향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비 40% 증가
  - 국제유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년동월비 51.8% 상승
  - 국제유가 상승과 전방산업(건설, 자동차 등) 경기회복세로 수출단가는 127.8% 상승(톤당 2,834달러)
  - 중국(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위생용품 수요 증가), EU(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확대), 인도(단가 상승과 인도 유화시장 성장)로의 수출 증가
  - 국내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일본, 중동산 제품의 수입액은 각각 22.5%, 17.4% 증가

###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0	7.5	15.7	7.8	4.6	2.0	7.1	4.7	-
	생산(전기비)	-	-	1.9	-0.6	-1.6	-2.2	-0.3	4.0	-
	출하	-2.9	5.2	10.6	2.0	5.8	6.4	9.7	1.6	-
	재고	-6.2	22.8	3.2	25.2	22.8	17.5	17.0	22.8	-
	가동률	-1.8	3.9	9.3	4.6	1.8	-1.6	3.8	3.1	-
교역 동향	수출	-16.4	54.8	81.0	63.9	54.1	69.2	62.9	34.2	40.0
	수입	-15.1	36.1	71.7	44.1	18.6	33.9	16.7	9.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8) 섬유

### □ 생산, 증가세 지속, 수출, 4개월 연속 증가

- 지난 12월 생산은 위드 코로나 시행 기대와 연말 특수로 의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 7.4% 증가, 전월비 6.0% 증가
  - 출하도 수출 호조로 7.3%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동률도 15.5% 상승했으며, 재고는 1.4% 감소
  - 겨울 의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편조의류 생산이 41.1% 증가 및 봉제의류 11.7% 증가
    - \* 화학섬유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0월) 5.1% → (11월) 4.4% → (12월) -1.5%
    - \* 염색가공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0월) 17.3% → (11월) 21.6% → (12월) 14.1%
    - \* 봉제의류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0월) 8.3% → (11월) 8.3% → (12월) 11.7%
    - \* 편조의류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0월) 6.9% → (11월) 9.4% → (12월) 41.1%
    - \* 기타 섬유제품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0월) -15.1% → (11월) -8.0% → (12월) -11.1%

###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4.8	6.5	21.5	7.2	5.8	3.8	6.3	7.4	-
	생산(전기비)	-	-	15.1	2.4	3.3	0.3	4.1	6.0	-
	출하	-11.9	4.6	19.41	8.4	3.1	-2.2	4.4	7.3	-
	재고	-4.7	-1.4	-3.9	-1.4	-1.4	-0.3	-0.4	-1.4	-
	가동률	-12.4	12.8	34.7	11.9	13.5	8.8	16.1	15.5	-
교역 동향	수출	-13.3	14.0	46.0	9.9	16.8	13.9	14.2	14.0	22.3
	수입	-5.3	12.9	16.6	3.6	24.0	9.9	12.5	12.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 지난 12월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글로벌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비 22.3%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
  - 섬유품목의 단가 상승과 아세안 및 중국 등 주요 소싱 지역의 전방산업 호조로 인한 수출 확대로 증가세 지속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2021년 1월) 9.1(-8.0%) → (2022년 1월) 11.1 (22.3%)
    - \* 1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아세안 2.7(8.9%), 중국 1.0(0.5%), 미국 1.3(40.7%)

## (9) 가전

### □ 수출과 생산, 증가세를 지속

- 지난 12월 생산은 수출 증가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1.3% 증가, 전월비 9.1% 증가
  - 생활가전이 연말 수요 물량 소진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영상음향기기는 2020년 국내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생산감소분 해소로 증가
    - \* 영상음향기기 생산은 국내 TV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2020년 11월~2021년 10월 기간 전년 동기비 약 40~50% 감소
  - 재고는 판매 호조에 불구하고, 물류 차질에 따른 일부 출하 지연과 영상음향기기, 조명기기 분야의 생산 증가로 전년동월비 12.1% 증가
  - 가동률은 영상음향기기, 조명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6.4% 상승
- 올 1월 수출은 해외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21.2% 증가
  - 국내 프리미엄 가전의 주요국 시장점유율 우위 지속으로 대미국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고 중남미,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증가
    - \* 1월 1~25일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미국 35.2%, 중남미 51.2%, 아세안 24.6%
  -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전제품 수요 특수로 작용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
    - \* 1월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2020년) -18.6% → (2021년) 19.6% → (2022년) 21.2%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1	2.2	5.8	-5.3	1.0	-2.1	3.9	1.3	-
	생산(전기비)	-	-	-3.8	-2.0	-0.9	-4.7	3.1	9.1	-
	출하	1.4	-0.5	2.1	-6.9	-0.3	-3.0	-7.2	9.7	-
	재고	11.1	10.7	23.3	0.3	5.7	-3.5	9.8	12.1	-
	가동률	2.4	0.6	2.0	-6.7	3.9	-1.4	7.1	6.4	-
교역 동향	수출	0.5	24.0	66.5	11.7	15.3	13.7	20.9	11.6	21.2
	수입	6.3	19.1	24.1	12.8	5.9	2.1	16.8	-0.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 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지난 12월 수입은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0.9% 감소
  - 최대 수입 대상국인 대중국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도 감소로 전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동남아 지역 생산 차질로 멕시코 TV 역수입은 220.9%의 큰 폭 증가세 유지

(10) 무선통신기기

□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 출하 및 가동률 상승 추세 지속

- 올 1월 수출은 최대시장인 중국으로의 부품 수출 증가 및 스마트폰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로의 부품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비 1.9% 증가
  - 국내 폴더블폰의 글로벌 시장 판매 호조 지속 및 2월 신제품 발매로 인한 휴대폰 부품 조기 공급 등이 수출 증가의 주된 요인

##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1.3	21.1	41.7	18.7	4.2	9.2	8.8	-4.8	-
	생산(전기비)	-	-				-11.7	11.8	14.9	-
	출하	-14.4	22.8	36.0	14.3	6.4	3.1	6.6	9.5	-
	재고	15.2	2.9	-7.5	-9.0	2.9	9.0	16.3	2.9	-
	가동률	-8.5	24.1	24.1	24.0	20.5	25.2	20.1	16.4	-
교역 동향	수출	-6.4	22.9	38.5	25.7	12.1	15.5	16.4	4.8	1.9
	수입	-4.9	12.5	0.5	8.7	18.7	54.5	-3.6	10.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수출지역별로는 중국 및 인도로 각각 63.2% 및 184.9% 증가한 반면, 미국 및 아세안 지역으로 각각 67.7% 및 10.3% 감소

● 지난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4.8% 감소

- 이는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급 등 공급망 문제에 따른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 및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폰 출시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의 요인이 작용
- 가동률은 2분기 24.1% 수준에서 12월 16.4%로 점차 하락
- \* 출하 증가율은 2분기 36.0% 수준에서 12월 9.5%를 기록

● 지난 12월 국내 휴대폰(이동통신 가입자 수 기준) 시장은 전월비 0.2% 및 전년동월비 1.3% 증가

- 스마트폰 신제품의 신규 구매 및 기기변경 수요가 지속되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는 소폭이나마 확대

● 지난 12월 수입은 휴대폰, 무선교환기 및 증계기, 휴대폰 부품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0.3% 증가

- 품목별로는 휴대폰이 11.3%, 무선교환기 및 증계기가 22.6%, 휴대폰 부품이 4.8% 증가

\* 외국 휴대폰 신규 제품이 국내 발매된 10월 일시적인 대량 교체 수요 발생 이후 수입 증가율은 서서히 하락 추세

### (11) 반도체

#### □ 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

- 올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4.2% 증가한 108억 2,000만 달러로, 2020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 특히,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돌파
  -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 증가율은 각각 24.5%, 34.4%, 39.6%, 43.0%, 28.2%, 28.8%, 40.1%, 35.1%, 24.2%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 지속
- 지난 12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31.5% 및 17.5% 증가하여 지속적인 매출 호조세
  - 국내 생산기업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생산은 전월비 8.0% 증가
  - 재고는 전년동월비 18.7% 증가하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동률은 9.0% 증가하며 안정적인 생산 증가세 유지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2.7	29.7	27.2	33.9	34.2	37.7	33.9	31.5	-
	생산(전기비)	-	-	-0.5	11.3	4.1	-1.7	4.6	8.0	-
	출하	27.5	32.3	40.8	33.4	21.2	15.6	30.5	17.5	-
	재고	8.7	18.7	-25.6	-2.9	18.7	25.9	20.3	18.7	-
	가동률	3.7	7.2	7.1	9.1	7.9	9.1	5.6	9.0	-
교역 동향	수출	5.6	29.0	29.7	36.3	34.6	28.8	40.1	35.1	24.2
	수입	6.9	22.1	25.1	20.6	28.4	13.8	32.5	39.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 지난해 수출은 전년비 29.0% 증가하여 2017년 57.4%, 2018년 29.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 기록
  - 생산과 출하는 각각 29.7% 및 32.3%의 대폭 증가
  - 재고는 18.7% 증가하였지만 생산과 출하가 대폭 증가한 데 기인하며 재고 과잉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 (12) 디스플레이

### □ 수출, OLED 가격 상승으로 증가세 지속

- 지난 12월 생산은 스마트폰 생산 감소에 따른 패널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비 4.2% 감소
  -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악화로 스마트폰 출시 시기가 연기되면서 스마트폰용 패널 수요가 지연
  - 올 1분기에는 지난해 연기된 스마트폰 출시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스마트폰용 패널을 중심으로 생산이 다시 증가할 전망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4.3	1.7	-5.5	-8.1	-10.5	-9.4	-4.2	-
	생산(전기비)	-	-	-4.0	-1.0	3.5	-5.8	8.3	7.0	-
	출하	-8.8	-8.2	-4.2	-9.3	-10.2	-11.7	-12.2	-6.4	-
	재고	-9.2	15.1	-17.1	-7.4	15.1	5.2	18.1	15.1	-
	가동률	3.9	2.5	3.2	-4.1	-3.7	-7.3	-5.8	1.9	-
교역 동향	수출	-12.2	18.9	36.0	25.2	5.8	5.3	10.4	2.0	10.0
	수입	-28.8	-12.9	-23.5	-0.2	22.5	10.5	66.5	0.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1월 수출은 스마트폰용 패널 수출물량 감소에도 패널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10.0% 증가하여 10개월 연속 증가
  - LCD 수출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생산 축소로 1.7% 감소로 전환
  -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 조정으로 OLED 수출 물량 감소가 나타났으나, 고부가 패널 수요 확대로 OLED 수출은 15.7% 증가, 지난해 9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
    - \* OLED 출하량(백만 대): 모바일: (2021년 1월) 46.9 → (2021년 1월 추정) 42.0
    - TV: (2021년 1월) 0.3 → (2022년 1월 추정) 0.7
  - 패널 가격 상승으로 주요 수출지역인 아세안, 중국 모두 수출 증가
    - \* 주요 지역 수출액, 증가율(억 달러, %): 아세안 9.3(1.1%), 중국 5.5(10.4%)

## 02 서비스산업

### (1) 생산

□ 12월 생산, 전년동월비 5.8% 증가

- 지난 12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5.8% 증가(전월비 0.5% 감소)
- 지식서비스산업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3.6% 증가
- 서비스산업 중 생산·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8.0%)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매업(8.7%)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2% 증가
- 운수·창고업은 항공운송업(40.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22.2%)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12.0% 증가

###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3/4	4/4*	10월	11월*	12월*
서비스 총지수	106.9	108.4	106.2	110.5	110.0	116.5	111.7	114.7	123.0
상승률	2.3	1.4	-2.0	-2.0	3.9	5.4	5.0	5.4	5.8
전기비	-	-	-	0.9	0.9	1.4	-0.5	2.3	-0.5
도·소매	1.5	-0.4	-2.6	-1.8	3.6	4.1	4.1	4.0	4.2
운수·창고	2.1	0.0	-14.2	-13.1	7.0	10.6	9.8	9.9	12.0
숙박·음식점	-1.9	-1.0	-18.5	-24.6	-1.5	18.8	7.4	14.3	38.4
정보통신	1.4	3.5	1.4	0.0	6.9	7.4	6.8	8.2	7.3
금융·보험	5.8	1.7	14.0	18.7	6.3	3.7	6.9	4.8	-0.1
부동산	0.2	0.4	5.5	0.5	0.4	0.1	2.9	1.2	-3.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8	1.4	0.1	0.3	0.2	3.6	1.7	3.8	4.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0.6	2.3	-9.9	-11.7	3.0	4.8	4.6	5.2	4.6
교육	0.1	-0.5	-4.7	-3.9	1.6	2.5	1.4	2.5	3.5
보건·사회복지	5.6	8.1	1.4	-0.4	4.5	4.3	3.4	4.0	5.4
예술·스포츠·여가	-0.6	1.2	-32.6	-33.3	7.6	19.5	13.8	14.5	31.3
협회·수리·개인서비스	0.7	-1.5	-8.2	-10.4	-0.6	5.4	5.1	5.3	5.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0	-0.4	3.3	2.3	3.4	-0.2	-4.0	2.3	1.3
지식서비스	3.2	3.1	3.9	4.7	4.5	4.2	4.5	4.6	3.6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항공운송업은 2021년 3월 실적 개선 이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9월, 27.9% → 10월, 32.8% → 11월, 35.0% → 12월, 40.2%)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50.9%), 음식점업(30.6%), 주점업(65.1%) 등 모든 업종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38.4% 증가
-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적 악화세가 지속되었던 주점업은 2020년 1월 이후 최대폭 증가

- 정보통신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31.0%), 정보서비스업(18.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5%), 출판업(5.7%)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7.3% 증가
  - 정보서비스업은 2020년 10월 이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정보통신업 상승을 주도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2020년 1월 이후 최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의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21.2%)의 실적 악화로 인해 금융업(9.0%)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비 0.1% 감소
  - 금융·보험업은 2019년 10월 1.3% 감소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
- 부동산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5.9%)의 실적 둔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3.4% 감소
-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2.0%)의 실적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연구개발업(12.2%)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4.7% 증가(전월비 37.4%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임대업(부동산 제외, 6.9%),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5.7%), 사업지원서비스업(3.5%) 등 모든 업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6% 증가
  - 임대업(부동산 제외)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10.7%), 운송장비 임대업(5.6%)이 큰 폭의 증가세 주도
- 교육서비스업은 초등교육기관(1.0%), 중등교육기관(-1.3%), 고등교육기관(-1.8%)의 실적 감소 및 둔화에도 불구하고, 학원(31.0%)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3.5% 증가
  - \* 교육서비스업은 2020년 3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3월 증가세 전환 이후 소폭의 증가세 유지
- 보건·사회복지업은 병원(6.4%), 의원(5.1%), 거주복지시설 운영업(4.2%),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6.8%)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5.4%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는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60.9%), 스포츠서비스업(27.0%),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12.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8.8%)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31.3% 증가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는 기타 개인서비스업(16.8%)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5.7% 증가

## (2) 고용

□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18만 1,000명(6.5%) 증가

- 지난 12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부동산, 정보통신, 운수·창고, 교육 등 대부분 업종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월비 118만 1,000명(6.5%) 증가
- 보건·사회복지는 전년동월비 33만 4,000명(15.8%) 증가하였으며, 전체 서비스업종 취업자 수 증가의 28.3%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2021년 2월 이후 전년동월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월비는 2월 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이며, 11월에는 2만 3,000명, 12월에는 22만 8,000명 감소
- 운수·창고(12만 8,000명, 7.1%), 교육(12만 2,000명, 6.9%), 전문·과학·기술서비스(10만 9,000명, 9.3%), 정보통신(9만 8,000명, 11.7%), 부동산(5만 9,000명, 12.1%) 등 대부분 업종도 전년동월비 증가
- 숙박·음식점업도 전년동월비 6만 5,000명(6.5%)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5만 1,000명(-1.5%) 감소하며 전체 서비스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67만 1,000명(10.0%) 증가
  - 2021년 3월 증가세 전환 이후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108만 6,000명 증가(전월비로는 15만 3,000명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3/4	4/4	10월	11월	12월
총취업자 수	18,796	19,111	18,866	18,864	19,449	19,456	19,514	19,557	19,291
증감률	0.4	1.7	-1.3	-2.2	2.8	3.1	2.3	5.1	6.5
전기비	-	-	-	-0.3	0.9	0.04	0.1	0.2	-1.4
도·소매	-1.9	-1.6	-4.4	-5.1	-4.0	-3.0	-3.9	-2.3	-1.5
운수·창고	0.1	1.8	3.6	1.8	8.9	9.8	8.6	8.5	7.1
숙박·음식점	-2.0	2.7	-6.9	-10.1	-0.1	0.0	-2.2	1.6	6.5
정보통신	7.0	2.8	-1.6	-2.1	8.7	11.6	11.0	10.8	11.7
금융·보험	5.8	-4.7	-2.7	-3.1	2.7	2.6	2.1	2.1	1.0
부동산	-2.2	5.3	-7.0	-12.4	6.5	10.0	9.9	12.0	12.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4	5.5	0.6	-0.2	5.0	6.9	5.2	6.4	9.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4.6	0.1	2.7	4.3	4.6	2.7	1.7	3.1	6.9
공공행정·국방	4.9	-3.0	3.3	11.2	4.0	-4.7	-6.6	4.9	9.7
교육	-3.2	2.0	-4.6	-5.5	3.2	6.1	5.3	6.4	6.9
보건·사회복지	6.5	7.8	5.9	3.9	10.5	10.6	12.6	17.6	15.8
예술·스포츠·여가	3.8	11.3	0.3	-10.1	-6.9	-1.0	-3.9	1.3	14.3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2	-0.3	-3.5	-3.5	-3.7	-3.9	-4.7	-0.5	-0.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3	6.6	12.9	12.9	13.0	6.8	4.3	4.3	10.1
지식서비스	2.6	3.6	0.2	-0.9	6.6	8.0	8.1	10.2	10.0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 만 명): (2021년 6월) 37.9 → (7월) 38.0 → (8월) 42.0 → (9월) 63.6 → (10월) 51.7 → (11월) 89.2 → (12월) 108.6
- 전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년 6월) 7.5 → (7월) 4.2 → (8월) -2.5 → (9월) 7.9 → (10월) 1.5 → (11월) 3.9 → (12월) -15.3

### (3) 서비스수지

#### □ 12월 서비스수지 2억 3,600만 달러 적자

- 지난 12월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 감소, 유지보수서비스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여행수지 등의 적자 확대로 2억 3,600만 달러 적자
-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연구개발서비스수지,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수지 및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 악화로 인해 전월 12억 4,300만 달러 적자에서 19억 5,400만 달러로 적자 규모 확대(전월비 7억 1,100만 달러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3/4	4/4	10월	11월	12월
서비스수지	-29,369	-26,845	-16,190	-2,342	498	140	645	-269	-236
가공서비스	-7,325	-7,611	-5,685	-1,494	-1,261	-1,292	-393	-444	-456
유지보수	-323	-348	-913	-230	-194	-383	-110	-88	-185
운송	-2,508	-1,734	2,132	1,506	4,724	5,644	2,313	1,718	1,613
여행	-16,566	-11,872	-5,630	-1,428	-1,593	-1,633	-462	-505	-666
건설	9,719	6,776	4,770	1,445	774	1,199	321	342	536
보험	107	-256	-336	86	-63	141	35	46	59
금융	817	921	1,757	555	379	418	123	137	159
지식재산권 사용료	-2,063	-2,157	-3,034	-645	-676	-617	-436	-326	145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557	2,461	1,604	514	1,096	709	160	45	504
기타 사업서비스	-12,215	-12,391	-10,410	-2,576	-2,767	-4,129	-932	-1,243	-1,954
개인·문화·여가	227	271	184	93	240	193	56	54	84
정부	-797	-905	-629	-169	-159	-110	-31	-4	-75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연구개발서비스수지,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는 각각 전월비 3억 6,000만 달러, 2억 5,500만 달러, 9,700만 달러 적자 증가
- 여행수지는 여행수입의 감소로 전월 5억 500만 달러에서 6억 6,6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1억 6,100만 달러 증가
  - 일반여행수입이 전월비 1억 5,700만 달러 감소하며 여행수지 적자 규모 확대 주도
- 운송수지는 해상운송수지의 흑자 대폭 감소로 전월비 1억 500만 달러 감소한 16억 1,300만 달러 흑자
  - 해상운송수지는 전월 11억 6,300만 달러에서 10억 5,700만 달러로 흑자 규모가 1억 700만 달러 감소하여 전체 운송수지 흑자 감소 주도
- 유지보수서비스수지는 유지보수서비스 지급의 증가로 인해 전월 8,800만 달러 적자에서 1억 8,5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확대(전월비 9,700만 달러 감소)
  - 유지보수서비스 지급이 전월 1억 2,700만 달러에서 2억 5,100만 달러로 1억 2,400만 달러 증가하며 적자 규모 확대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는 흑자 규모가 전월 4,500만 달러에서 5억 400만 달러로 4억 5,900만 달러 증가
  - 정보서비스 수지는 전월비 2억 9,500만 달러 감소하였으나, 컴퓨터서비스수지가 전월비 7억 6,600만 달러 증가하여 전체 수지의 흑자 규모 대폭 증가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월 3억 2,600만 달러 적자에서 1억 4,500만 달러 흑자로 전환(전월비 4억 7,100만 달러 증가)
  -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전월비 1억 6,800만 달러 감소하였으나,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수입이 각각 전월비 3억 1,800만 달러, 2억 2,700만 달러 증가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흑자 전환 주도
- 건설수지는 전월 3억 4,200만 달러 흑자에서 1억 9,400만 달러 증가한 5억 3,600만 달러로 흑자 규모 대폭 확대

# IV

## 지역별 동향

### 01 개관

#### (1) 생산

- 지난 12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증가
  - 광주(21.3%), 경기(13.9%), 충북(13.5%)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충남(-2.5%), 경남(-0.5%) 등은 감소

####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전국	0.4	-0.4	6.9	12.7	5.1	5.7	-1.9	4.5	6.3	6.2	
수도권	서울	-6.4	-15.3	5.5	11.4	7.2	3.7	0.0	10.8	1.1	0.0
	인천	-5.3	-1.0	7.7	16.0	6.5	5.8	-3.8	4.4	11.9	1.9
	경기	3.6	8.6	13.7	19.0	12.1	13.2	3.5	13.1	12.5	13.9
충청권	대전	10.1	-6.9	0.9	12.7	-9.9	-1.7	-6.2	0.0	-1.1	-3.9
	세종	2.1	7.1	11.1	14.8	12.9	8.3	11.7	13.1	6.1	6.2
	충북	1.8	-5.2	12.0	19.3	10.5	11.1	1.0	12.3	7.8	13.5
	충남	-4.4	-2.4	0.4	6.9	-0.5	-3.9	-6.6	-4.5	-4.7	-2.5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호남권	광주	-0.9	-0.2	7.8	25.5	-8.3	9.8	-13.8	-3.8	13.5	21.3
	전북	-6.1	-5.7	6.6	12.3	3.7	7.9	-7.5	5.6	8.9	9.2
	전남	2.1	-0.8	8.4	9.1	9.9	12.1	8.3	10.9	14.1	11.2
대경권	대구	0.0	-11.5	10.0	28.4	6.9	6.5	-6.7	-0.3	9.1	10.5
	경북	-2.0	-5.9	3.7	10.0	-2.5	3.4	-7.0	0.2	3.0	6.5
동남권	부산	-1.8	-6.6	0.3	2.2	1.1	6.3	-0.2	9.1	6.0	4.1
	울산	1.3	-6.4	2.0	9.4	-2.2	-2.6	-11.6	-5.3	-4.5	2.0
	경남	1.6	-7.1	1.5	8.7	0.7	1.1	-7.9	0.6	3.4	-0.5
강원권		0.6	-5.3	-0.1	3.2	-1.3	1.4	-13.6	-1.9	2.7	3.2
제주권		-2.6	-6.1	3.9	10.2	4.9	-2.0	-5.2	4.6	0.2	-8.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

## (2) 고용

- 지난 12월 전국 취업자 수는 2,730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2.9% 증가
  - 광주(-3.1%), 울산(-0.7%), 경남(-0.6%)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경기(7.3%), 강원(6.6%), 충북(3.8%), 충남(3.3%)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7,123 (1.1)	26,904 (-0.8)	27,273 (1.4)	27,467 (2.3)	27,645 (2.1)	27,603 (1.9)	27,683 (2.5)	27,741 (2.4)	27,795 (2.0)	27,298 (2.9)
수도권	서울	5,086 (0.1)	5,051 (-0.7)	5,055 (0.1)	5,081 (1.2)	5,077 (0.4)	5,053 (-0.6)	5,089 (1.4)	5,074 (0.5)	5,105 (0.1)	5,127 (2.2)
	인천	1,581 (0.4)	1,560 (-1.3)	1,563 (0.2)	1,575 (0.9)	1,575 (0.3)	1,578 (0.1)	1,581 (1.2)	1,579 (1.2)	1,591 (1.1)	1,542 (0.6)
	경기	6,952 (2.4)	6,909 (-0.6)	7,150 (3.5)	7,154 (3.5)	7,255 (5.1)	7,238 (5.1)	7,266 (5.3)	7,314 (5.7)	7,375 (5.9)	7,329 (7.3)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충청권	대전	772 (1.7)	780 (1.0)	785 (0.6)	787 (1.8)	797 (1.7)	801 (1.8)	797 (1.5)	795 (0.6)	803 (0.9)	789 (1.3)
	세종	168 (13.5)	180 (7.1)	185 (2.8)	188 (4.4)	189 (2.2)	188 (1.6)	190 (2.2)	188 (2.2)	185 (1.1)	180 (0.6)
	충북	880 (0.5)	890 (1.1)	897 (0.8)	907 (0.6)	910 (1.0)	914 (1.9)	911 (1.4)	921 (3.5)	917 (1.9)	903 (3.8)
	충남	1,196 (1.4)	1,176 (-1.7)	1,193 (1.4)	1,217 (2.3)	1,231 (2.0)	1,228 (1.8)	1,234 (2.4)	1,239 (1.6)	1,219 (2.3)	1,169 (3.3)
호남권	광주	750 (0.1)	748 (-0.3)	745 (-0.4)	752 (0.8)	751 (0.3)	751 (0.5)	749 (-0.3)	750 (0.1)	743 (-0.1)	728 (-3.1)
	전북	928 (1.4)	932 (0.4)	953 (2.3)	962 (3.6)	970 (2.4)	969 (2.8)	970 (2.0)	972 (1.7)	970 (0.4)	924 (0.8)
	전남	974 (1.4)	974 (0.0)	985 (1.1)	995 (1.8)	1,001 (1.9)	1,000 (1.8)	1,010 (2.9)	1,017 (2.9)	1,008 (2.3)	964 (1.2)
대경권	대구	1,219 (-0.6)	1,184 (-2.9)	1,217 (2.8)	1,229 (5.7)	1,231 (2.6)	1,227 (2.1)	1,232 (2.2)	1,232 (2.3)	1,232 (1.3)	1,211 (1.1)
	경북	1,430 (0.2)	1,418 (-0.8)	1,410 (-0.6)	1,417 (0.3)	1,439 (-0.1)	1,432 (-0.6)	1,447 (0.6)	1,450 (0.8)	1,437 (-0.5)	1,397 (0.9)
동남권	부산	1,676 (1.1)	1,640 (-2.1)	1,657 (1.0)	1,670 (3.4)	1,682 (2.4)	1,691 (2.8)	1,669 (1.5)	1,664 (0.8)	1,669 (0.4)	1,644 (0.6)
	울산	571 (-0.5)	560 (-1.9)	555 (-0.9)	552 (-0.5)	558 (-0.9)	558 (-0.5)	563 (-0.4)	564 (0.7)	564 (0.4)	551 (-0.7)
	경남	1,749 (0.2)	1,729 (-1.1)	1,732 (0.2)	1,762 (2.0)	1,759 (1.2)	1,753 (0.5)	1,760 (1.8)	1,755 (1.2)	1,743 (-0.2)	1,674 (-0.6)
강원권		811 (2.8)	795 (-2.0)	809 (1.8)	832 (2.2)	841 (3.1)	841 (2.6)	837 (3.1)	841 (2.9)	843 (3.7)	776 (6.6)
제주권		382 (2.7)	378 (-1.0)	383 (1.3)	388 (4.6)	380 (0.5)	381 (0.5)	378 (-0.5)	386 (1.3)	393 (0.5)	389 (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 (3) 수출

- 지난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3% 증가한 607억 달러를 기록
  - 수출 증가세가 12개월 연속 이어지며 연간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지역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남(54.8%), 울산(39.3%)이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남(-32.9%)은 비교적 큰 감소를 기록

##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0.4	-5.5	25.7	42.1	26.5	34.7	16.9	24.2	31.9	18.3
수도권	서울	-11.2	-7.1	39.9	83.3	31.5	29.8	12.9	19.5	16.9	12.5
	인천	-6.8	-0.8	13.6	16.7	19.4	45.7	20.0	42.9	78.1	25.1
	경기	-18.6	-1.3	19.8	27.1	17.0	24.6	8.4	15.8	24.1	19.5
충청권	대전	-10.3	24.0	-1.3	12.6	-9.3	3.3	-18.4	-14.0	-0.4	-8.7
	세종	4.5	1.2	17.7	30.9	16.5	6.8	30.1	29.3	0.0	12.4
	충북	-5.0	12.6	15.7	19.3	20.5	21.7	11.2	4.2	1.5	-0.3
호남권	충남	-13.1	-0.5	30.8	42.6	39.5	42.9	30.8	26.6	36.0	26.0
	광주	-8.5	2.7	18.1	49.4	0.9	4.1	-6.7	0.1	14.3	27.7
	전북	-16.5	-10.6	30.6	54.1	28.9	36.9	10.0	29.6	33.9	17.8
대경권	전남	-11.0	-16.9	36.3	65.1	30.9	48.3	71.2	79.3	89.3	54.8
	대구	-7.6	-16.4	29.6	70.3	27.3	43.9	11.6	22.4	30.7	28.8
	경북	-7.8	-1.6	21.2	33.1	23.9	42.1	14.7	15.0	18.7	16.0
동남권	부산	-3.4	-18.7	29.5	53.2	33.6	47.1	20.1	49.3	35.4	24.3
	울산	-0.9	-19.3	22.5	57.1	22.1	42.1	11.4	39.3	28.7	39.3
	경남	-2.2	-8.8	37.9	44.4	55.9	37.2	10.7	4.0	40.2	-32.9
강원권		-0.4	-3.1	34.8	47.7	39.0	40.3	30.5	49.4	11.9	7.4
제주권		-18.3	4.0	47.1	95.4	83.5	86.0	43.7	57.0	19.0	1.0

자료: 한국무역협회.

## (1) 수도권

- 서울: 생산 보합(0.0%), 고용 증가(2.2%), 수출 증가(12.5%)
  - 주요 업종인 의복 및 모피제품(16.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6.5%) 등의 생산이 증가했으나, 그 외 업종의 감소 및 보합으로 전체 생산은 보합에 그침.
  - 제조업(-0.2%) 소폭 감소했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5%)의 증가 등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합성수지(50.3%), 자동차부품(4.0%), 반도체(16.9%), 석유제품(91.6%)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인천: 생산 증가(1.9%), 고용 소폭 증가(0.6%), 수출 증가(25.1%)
  - 기타 기계 및 장비(6.6%) 등 생산이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세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2%), 제조업(0.3%)의 증가로, 농림·어업(-87.5%)의 감소에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53.3%), 농약 및 의약품(159.4%), 철강판(17.7%)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경기: 생산 증가(13.9%), 고용 증가(7.3%), 수출 증가(19.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0.4%) 등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30.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8.2%), 제조업(2.1%)의 전 부문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35.5%), 자동차(42.5%), 반도체제조용장비(40.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9.5%)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0	-21.0	4.7	10.3	5.4	6.8	-0.1	9.6	8.8	16.1
		전자부품 외	-1.2	-17.0	10.2	11.3	24.3	47.6	30.6	14.6	0.8	6.5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8.2	-5.8	5.7	15.3	1.0	9.0	-2.3	-2.7	12.6	10.7
	인천	기계 및 장비	-10.2	-1.4	25.4	52.8	20.0	11.4	12.6	16.5	18.2	6.6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	-9.9	-12.5	6.4	-26.6	-13.8	-40.9	-35.1	-2.3	-26.6
		전자부품 외	-7.8	2.9	24.3	74.8	37.1	90.4	11.7	-10.5	5.9	-5.4
	경기	전자부품 외	3.9	19.7	24.9	22.4	25.4	29.5	20.0	33.4	28.8	2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10.0	6.9	23.4	-7.6	8.8	-25.7	-21.3	-9.8	16.7
		기계 및 장비	27.2	14.0	-6.1	18.8	-16.3	-5.0	-30.9	-23.3	-19.4	-4.0
고용	서울	농림·어업	8 (14.3)	7 (-12.5)	5 (-28.6)	7 (-12.5)	3 (-62.5)	3 (-62.5)	4 (-50.0)	4 (-55.6)	4 (-42.9)	4 (-42.9)
		제조업	449 (-0.2)	447 (-0.4)	442 (-1.1)	439 (-0.9)	438 (-3.5)	433 (-6.7)	435 (-3.3)	443 (0.5)	441 (-0.9)	441 (-0.2)
		SOC·서비스	4,630 (0.1)	4,597 (-0.7)	4,609 (0.3)	4,636 (1.4)	4,636 (0.8)	4,617 (0.2)	4,651 (2.0)	4,628 (0.7)	4,661 (0.3)	4,683 (2.5)
	인천	농림·어업	15 (150.0)	14 (-6.7)	9 (-35.7)	12 (-20.0)	11 (-31.3)	12 (-25.0)	9 (-50.0)	7 (-56.3)	5 (-58.3)	1 (-87.5)
		제조업	328 (-7.1)	324 (-1.2)	312 (-3.7)	303 (-7.9)	314 (-3.1)	314 (-4.3)	311 (-2.8)	312 (-3.7)	325 (0.9)	322 (0.3)
		SOC·서비스	1,238 (1.8)	1,221 (-1.4)	1,241 (1.6)	1,260 (3.5)	1,249 (1.6)	1,251 (1.6)	1,260 (2.9)	1,259 (3.3)	1,260 (1.7)	1,218 (1.2)
	경기	농림·어업	118 (5.4)	107 (-9.3)	107 (0.0)	122 (-2.4)	124 (5.1)	127 (11.4)	119 (0.0)	130 (6.6)	121 (18.6)	90 (30.4)
		제조업	1,259 (-4.7)	1,283 (1.9)	1,344 (4.8)	1,355 (7.1)	1,315 (3.5)	1,301 (2.6)	1,309 (1.6)	1,322 (1.5)	1,355 (4.1)	1,350 (2.1)
		SOC·서비스	5,575 (4.1)	5,519 (-1.0)	5,699 (3.3)	5,677 (2.8)	5,816 (5.5)	5,810 (5.5)	5,838 (6.3)	5,862 (6.7)	5,899 (6.0)	5,889 (8.2)
	수출	서울	57,379 (-11.2)	53,332 (-7.1)	68,687 (28.8)	17,758 (73.1)	17,127 (22.2)	5,528 (29.8)	5,850 (12.9)	5,758 (19.5)	5,911 (16.9)	6,105 (12.5)
		인천	38,018 (-6.8)	37,701 (-0.8)	49,499 (31.3)	11,131 (32.5)	12,209 (32.8)	4,047 (45.7)	4,177 (20.0)	4,344 (42.9)	5,743 (78.1)	4,607 (25.1)
		경기	116,686 (-18.6)	115,157 (-1.3)	137,926 (19.8)	34,242 (27.1)	35,290 (17.0)	11,383 (24.6)	11,907 (8.4)	11,622 (15.8)	12,548 (24.1)	13,084 (19.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2) 충청권

- 대전: 생산 감소(-3.9%), 고용 증가(1.3%), 수출 감소(-8.7%)
  - 주요 업종인 담배 제조업(37.0%), 기타 기계 및 장비(27.7%)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6.8%)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세
  - 제조업(-16.2%)이 감소세이나, 농림·어업(50.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6%)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50.6%)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8.5%), 기타정밀화학제품(-49.3%)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
- 세종: 생산 증가(6.2%), 고용 증가(0.6%), 수출 증가(12.4%)
  - 제조업 생산은 6.2%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제조업(4.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45.9%), 정밀화학원료(76.3%), 합성수지(8.8%)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 충북: 생산 증가(13.5%), 고용 증가(3.8%), 수출 소폭 감소(-0.3%)
  - 지역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1.8%)이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52.8%), 식료품 제조업(5.2%) 등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23.7%), 제조업(2.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5%)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47.2%), 정밀화학원료(48.6%)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제품(-9.7%), 건전지 및 축전지(-24.2%), 농약 및 의약품(-75.5%)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소폭 감소
- 충남: 생산 감소(-2.5%), 고용 증가(3.3%), 수출 증가(26.0%)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8.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7%)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3.5%)의 감소 등으로 전체 생산 감소세
  - 농림·어업(2.2%), 제조업(5.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6%) 전 부문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7.4	11.7	-2.7	12.4	-26.0	-22.4	-31.7	-21.6	1.9	37.0
		기계 및 장비	18.5	-23.6	16.0	25.6	16.8	30.8	13.0	11.3	-16.2	27.7
		화학제품 외	32.8	-4.7	-12.5	-11.8	-22.2	-33.8	-6.3	-9.1	-19.7	-36.8
	세종	총지수	2.1	7.1	11.1	14.8	12.9	15.3	11.7	13.1	6.1	6.2
		전자부품 외	3.8	-14.2	33.2	31.1	46.9	45.4	57.1	38.8	37.0	52.8
		식료품	13.3	5.3	5.5	6.2	2.3	6.1	-1.0	8.2	14.0	5.2
	충북	화학제품 외	1.2	3.3	18.1	56.7	5.9	19.5	-29.3	0.2	-19.8	-11.8
		전자부품 외	-9.8	-9.5	-16.8	-10.0	-12.6	-12.0	-17.5	-25.4	-22.4	-1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	-0.4	-1.6	5.3	-22.3	-12.3	-27.9	2.2	-2.3	18.2
충남	화학제품 외	-3.0	-1.4	10.5	12.9	19.3	23.7	15.9	3.0	9.9	4.7	
	농림·어업	8 (14.3)	8 (0.0)	8 (0.0)	8 (-11.1)	8 (14.3)	8 (14.3)	9 (12.5)	10 (25.0)	10 (25.0)	9 (50.0)	
	제조업	102 (21.4)	105 (2.9)	91 (-13.3)	93 (-12.3)	91 (-11.7)	92 (-12.4)	92 (-10.7)	87 (-13.9)	88 (-12.0)	83 (-16.2)	
대전	SOC·서비스	661 (-1.0)	667 (0.9)	684 (2.5)	685 (4.1)	697 (3.6)	700 (3.7)	696 (3.3)	697 (2.5)	705 (2.6)	696 (3.6)	
	농림·어업	8 (14.3)	8 (0.0)	9 (12.5)	11 (22.2)	11 (22.2)	11 (22.2)	11 (22.2)	11 (22.2)	9 (12.5)	5 (0.0)	
	제조업	24 (0.0)	24 (0.0)	24 (0.0)	23 (0.0)	24 (0.0)	24 (0.0)	25 (8.7)	24 (4.3)	25 (4.2)	25 (4.2)	
세종	SOC·서비스	136 (16.2)	148 (8.8)	153 (3.4)	155 (4.7)	154 (0.7)	154 (0.7)	155 (0.6)	154 (2.0)	151 (-0.7)	151 (0.7)	
	농림·어업	89 (-1.1)	93 (4.5)	96 (3.2)	101 (0.0)	104 (3.0)	103 (4.0)	107 (7.0)	107 (9.2)	103 (13.2)	94 (23.7)	
	제조업	190 (4.4)	201 (5.8)	212 (5.5)	213 (8.7)	207 (1.0)	207 (1.0)	208 (-1.0)	207 (-0.5)	210 (0.5)	215 (2.4)	
충북	SOC·서비스	601 (0.0)	596 (-0.8)	588 (-1.3)	592 (-2.1)	599 (0.5)	603 (1.7)	596 (1.2)	606 (3.9)	603 (0.5)	593 (1.5)	
	농림·어업	143 (2.1)	162 (13.3)	177 (9.3)	197 (9.4)	206 (15.1)	205 (17.8)	206 (10.8)	208 (8.9)	186 (5.1)	139 (2.2)	
	제조업	270 (0.0)	250 (-7.4)	257 (2.8)	259 (4.0)	250 (5.0)	252 (5.9)	247 (4.2)	255 (2.4)	262 (3.6)	269 (5.9)	
충남	SOC·서비스	783 (1.8)	764 (-2.4)	760 (-0.5)	760 (-0.1)	775 (-1.9)	770 (-3.0)	782 (0.0)	776 (-0.6)	771 (1.2)	761 (2.6)	
	수출	대전	4,048 (-10.3)	5,018 (24.0)	4,954 (-1.3)	1,175 (12.6)	1,242 (-9.3)	421 (3.3)	406 (-18.4)	403 (-14.0)	426 (-0.4)	429 (-8.7)
	세종	1,285 (4.5)	1,300 (1.2)	1,531 (17.7)	361 (30.9)	388 (16.5)	117 (6.8)	139 (30.1)	144 (29.3)	137 (0.0)	139 (12.4)	
충북	22,080 (-5.0)	24,870 (12.6)	28,768 (15.7)	6,717 (19.3)	7,582 (20.5)	2,420 (21.7)	2,555 (11.2)	2,237 (4.2)	2,301 (1.5)	2,712 (-0.3)		
충남	79,951 (-13.1)	79,572 (-0.5)	104,115 (30.8)	24,757 (42.6)	28,193 (39.5)	9,408 (42.9)	10,059 (30.8)	8,983 (26.6)	9,958 (36.0)	10,146 (26.0)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주력수출품 중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3%)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9.6%), 컴퓨터(73.1%), 석유제품(66.4%)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3) 호남권

- 광주: 생산 증가(21.3%), 고용 감소(-3.1%), 수출 증가(27.7%)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8.0%)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54.5%), 기타 기계 및 장비(36.7%) 등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6%)의 감소, 제조업(-1.0%)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세
  -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39.9%), 자동차(39.8%), 자동차부품(131.3%)은 증가로, 냉장고(-2.0%)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증가세
- 전북: 생산 증가(9.2%), 고용 소폭 증가(0.8%), 수출 증가(17.8%)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9.2%)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32.1%), 식료품 제조업(11.2%) 등의 생산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4.4)의 감소와 제조업(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0%) 부분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동제품(26.5%), 정밀화학원료(27.2%), 농기계(43.1%)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전남: 생산 증가(11.2%), 고용 증가(1.2%), 수출 증가(54.8%)
  - 1차 금속 제조업(-0.3%)은 소폭 감소했으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6.7%), 석유정제품(16.3%)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5.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7.7%)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석유제품(66.3%), 합성수지(24.8%), 철강판(76.0%)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광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0.4	6.3	27.0	-14.9	4.4	-30.7	-19.7	17.3	54.5
		전기장비	1.0	8.7	14.7	41.7	-2.3	-7.0	-12.9	9.4	10.1	-8.0
		기계 및 장비	8.0	-11.2	6.1	27.4	-9.0	1.0	4.1	4.6	7.0	36.7
	전북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	-14.3	9.2	6.4	-0.6	14.2	-9.5	6.5	21.2	32.1
		화학제품 외	-11.0	-11.1	0.7	26.6	-5.1	-0.1	-17.2	-8.9	-12.5	-9.2
		식료품 제조업	5.6	-0.6	1.4	0.0	-3.3	3.0	-7.3	6.1	15.3	11.2
	전남	화학제품 외	2.2	-2.8	13.5	13.4	12.8	17.2	10.8	16.2	37.9	26.7
		1차 금속 제조업	-0.9	-8.1	7.4	24.2	6.4	3.0	5.1	0.6	-3.6	-0.3
		석유정제품	-2.9	-3.7	14.9	14.6	20.7	24.4	19.7	28.5	28.3	16.3
고용	광주	농림·어업	13 (30.0)	16 (23.1)	12 (-25.0)	13 (-18.8)	12 (-25.0)	11 (-31.3)	12 (-20.0)	13 (-23.5)	13 (-13.3)	13 (0.0)
		제조업	110 (-0.9)	107 (-2.7)	100 (-6.5)	100 (-6.5)	96 (-10.3)	93 (-13.1)	96 (-10.3)	100 (-5.7)	99 (-4.8)	104 (-1.0)
		SOC·서비스	626 (-0.2)	625 (-0.2)	632 (1.1)	639 (2.6)	644 (2.9)	647 (3.7)	640 (1.7)	638 (1.8)	630 (1.0)	611 (-3.6)
	전북	농림·어업	168 (7.0)	179 (6.5)	169 (-5.6)	179 (-5.3)	172 (-9.9)	170 (-10.5)	174 (-7.9)	174 (-7.0)	165 (-8.8)	153 (-4.4)
		제조업	123 (0.0)	123 (0.0)	120 (-2.4)	118 (-6.3)	116 (-3.3)	115 (-3.4)	120 (1.7)	123 (7.0)	123 (1.7)	123 (0.8)
		SOC·서비스	635 (0.0)	630 (-0.8)	663 (5.2)	664 (8.3)	681 (7.4)	684 (8.2)	676 (5.1)	675 (3.4)	682 (2.7)	648 (2.0)
	전남	농림·어업	191 (-2.6)	205 (7.3)	221 (7.8)	221 (6.3)	229 (6.5)	227 (5.6)	232 (7.9)	234 (4.9)	234 (6.4)	222 (5.2)
		제조업	104 (1.0)	106 (1.9)	97 (-8.5)	97 (-10.2)	98 (-12.5)	99 (-12.4)	98 (-10.1)	97 (-6.7)	99 (-2.0)	97 (0.0)
		SOC·서비스	678 (2.4)	662 (-2.4)	667 (0.8)	677 (2.4)	674 (3.1)	1,206 (4.1)	1,326 (-6.7)	1,327 (0.1)	1,447 (14.3)	1,568 (27.7)
	수출	광주	13,415 (-8.5)	13,772 (2.7)	16,259 (18.1)	4,067 (49.4)	3,933 (0.9)	1,206 (4.1)	1,326 (-6.7)	1,327 (0.1)	1,447 (14.3)	1,568 (27.7)
		전북	6,537 (-16.5)	5,842 (-10.6)	7,631 (30.6)	1,935 (54.1)	1,904 (28.9)	576 (36.9)	632 (10.0)	658 (29.6)	708 (33.9)	688 (17.8)
		전남	32,587 (-11.0)	27,092 (-16.9)	42,845 (58.1)	9,811 (78.6)	10,971 (53.3)	3,760 (48.3)	3,693 (71.2)	3,944 (79.3)	4,238 (89.3)	4,108 (54.8)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4) 대경권

- 대구: 생산 증가(10.5%), 고용 증가(1.1%), 수출 증가(28.8%)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5%), 금속가공제품(12.8%), 기타 기계 및 장비(46.2%) 등의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대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13.8	13.5	57.5	4.9	19.6	-13.8	-10.3	-6.1	1.5
		금속가공제품	-1.5	-13.4	7.3	28.1	8.1	15.0	-5.6	2.9	15.2	12.8
		기계 및 장비	10.2	-16.9	19.6	27.1	18.4	19.8	11.4	22.7	32.5	46.2
	경북	전자부품 외	-7.2	-11.4	8.4	4.2	-9.2	-27.8	-3.1	23.1	27.2	40.0
		1차 금속	-7.8	-2.8	-0.9	8.3	1.3	4.1	-5.5	-11.8	-8.0	-1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7.0	8.1	33.8	-0.6	11.6	-18.7	-11.1	-9.0	2.2
고용	대구	농림·어업	33 (10.0)	31 (-6.1)	15 (-51.6)	16 (-51.5)	11 (-64.5)	10 (-67.7)	11 (-62.1)	12 (-55.6)	11 (-57.7)	9 (-65.4)
		제조업	249 (-1.6)	231 (-7.2)	239 (3.5)	246 (7.4)	241 (6.2)	241 (6.2)	239 (5.8)	231 (0.9)	237 (2.2)	234 (0.4)
		SOC·서비스	936 (-0.6)	923 (-1.4)	963 (4.3)	967 (7.3)	979 (3.9)	975 (3.4)	983 (3.5)	990 (4.4)	984 (2.7)	968 (3.1)
	경북	농림·어업	251 (6.8)	262 (4.4)	274 (4.6)	285 (9.2)	293 (1.7)	293 (1.4)	293 (0.7)	295 (1.4)	274 (-5.2)	242 (-9.4)
		제조업	299 (5.3)	292 (-2.3)	283 (-3.1)	277 (-6.7)	281 (-2.1)	280 (-3.1)	284 (0.0)	288 (1.4)	296 (7.6)	300 (10.3)
		SOC·서비스	879 (-3.0)	863 (-1.8)	853 (-1.2)	854 (0.0)	864 (-0.1)	858 (-0.5)	870 (0.9)	866 (0.5)	866 (-1.5)	855 (1.2)
수출	대구	7,491 (-7.6)	6,265 (-16.4)	8,122 (29.6)	2,016 (70.3)	1,971 (27.3)	631 (43.9)	638 (11.6)	701 (22.4)	747 (30.7)	812 (28.8)	
	경북	37,712 (-7.8)	37,096 (-1.6)	44,949 (21.2)	10,414 (33.1)	11,452 (23.9)	3,907 (42.1)	3,830 (14.7)	4,166 (15.0)	4,298 (18.7)	4,362 (16.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농림·어업(-65.4%)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0.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1%)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10.2%)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307.3%) 대폭 증가, 농기계(99.4%), 인조장섬유직물(72.1%)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경북: 생산 증가(6.5%), 고용 소폭 증가(0.9%), 수출 증가(16.0%)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11.5%)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0.0%)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10.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2%)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로 전환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9.3%), 철강판(61.8%), 반도체(26.7%) 등의 증가로, 광학기기(-22.8%)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출 증가세

#### (5) 동남권

- 부산: 생산 증가(4.1%), 고용 소폭 증가(0.6%), 수출 증가(24.3%)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14.0%), 자동차 및 트레일러(46.8%), 1차 금속 제조업(6.2%) 등이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112.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4%)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12.7%)은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상위 수출품인 철강판(64.6%), 자동차(324.2%), 철강관 및 철강선(22.0%), 어류(216.2%)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울산: 생산 증가(2.0%), 고용 소폭 감소(-0.7%), 수출 증가(39.3%)
  - 대표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8%), 석유정제품(2.9%), 자동차 및 트레일러(2.5%)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로 전환
  - 농림·어업(-16.7%), 제조업(-1.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0%)이 포함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28.2%), 석유제품(90.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30.8%)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부산	기계 및 장비	6.4	-3.6	-0.4	-8.4	5.8	-7.9	17.8	27.1	30.0	1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0	-19.2	10.4	14.2	1.5	7.2	-2.4	44.9	33.5	46.8
		1차 금속 제조업	-0.2	-7.7	-1.9	-5.3	4.3	12.1	1.6	7.4	-0.2	6.2
	울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9.8	5.1	22.0	-7.6	18.1	-25.8	-13.8	-10.9	2.5
		화학제품 외	0.3	-2.8	6.4	8.7	9.7	8.8	8.7	0.0	8.1	6.8
		석유정제품	-3.1	-6.1	-3.6	-4.5	0.0	0.5	2.5	4.8	1.7	2.9
	경남	기타 운송장비	42.0	-12.9	-21.8	-24.6	-20.2	-15.3	-21.2	-6.6	-1.2	-7.7
		기계 및 장비	-6.9	-9.8	8.5	15.0	10.7	30.4	-0.5	14.6	8.2	7.9
		금속가공제품	-16.0	-1.7	-7.7	-9.7	-8.1	0.2	-10.0	-11.9	-10.6	0.0
고용	부산	농림·어업	7 (-30.0)	7 (0.0)	11 (57.1)	10 (42.9)	12 (71.4)	12 (71.4)	11 (57.1)	12 (50.0)	13 (44.4)	17 (112.5)
		제조업	284 (-0.7)	255 (-10.2)	240 (-5.9)	244 (-5.4)	237 (-5.6)	239 (-4.4)	234 (-5.3)	229 (-8.4)	229 (-7.3)	220 (-12.7)
		SOC·서비스	1,385 (1.8)	1,378 (-0.5)	1,407 (2.1)	1,417 (4.9)	1,433 (3.4)	1,440 (3.7)	1,424 (2.4)	1,423 (2.2)	1,428 (1.6)	1,408 (2.4)
	울산	농림·어업	6 (0.0)	7 (16.7)	6 (-14.3)	6 (-14.3)	7 (0.0)	8 (33.3)	8 (14.3)	6 (-14.3)	5 (-28.6)	5 (-16.7)
		제조업	176 (-4.9)	162 (-8.0)	163 (0.6)	162 (1.3)	163 (2.5)	164 (3.8)	162 (2.5)	164 (3.1)	162 (1.9)	161 (-1.2)
		SOC·서비스	389 (1.6)	392 (0.8)	385 (-1.8)	384 (-1.3)	389 (-2.0)	386 (-2.8)	393 (-1.8)	394 (0.0)	397 (0.0)	386 (0.0)
	경남	농림·어업	178 (-2.7)	184 (3.4)	203 (10.3)	207 (8.4)	225 (19.7)	228 (21.3)	226 (22.2)	227 (16.4)	211 (16.6)	188 (11.9)
		제조업	396 (-5.3)	399 (0.8)	377 (-5.5)	380 (-6.6)	370 (-7.0)	365 (-9.4)	370 (-4.1)	368 (-1.1)	378 (-3.3)	386 (0.8)
		SOC·서비스	1,173 (2.5)	1,145 (-2.4)	1,151 (0.5)	1,175 (4.3)	1,164 (1.0)	1,161 (0.7)	1,164 (0.5)	1,160 (-0.7)	1,154 (-1.8)	1,100 (-2.9)
수출	부산	13,924 (-3.4)	11,320 (-18.7)	14,661 (29.5)	3,761 (53.2)	3,707 (33.6)	1,190 (47.1)	1,214 (20.1)	1,313 (49.3)	1,404 (35.4)	1,382 (24.3)	
	울산	69,530 (-0.9)	56,091 (-19.3)	74,625 (33.0)	18,804 (66.3)	18,434 (31.4)	5,585 (42.1)	6,113 (11.4)	6,590 (39.3)	6,496 (28.7)	7,388 (39.3)	
	경남	39,353 (-2.2)	35,893 (-8.8)	36,918 (2.9)	9,071 (17.7)	9,368 (19.6)	2,750 (37.2)	3,110 (10.7)	3,194 (4.0)	3,730 (40.2)	2,958 (-32.9)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경남: 생산 소폭 감소(-0.5%), 고용 소폭 감소(-0.2%), 수출 감소(-32.9%)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7.9%)는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7.7%) 감소, 금속 가공제품(0.0%) 보합 등으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전환
  - 제조업(0.8%) 소폭 증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 감소 등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세
  - 주요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82.9%), 자동차부품(-10.8%), 원동기 및 펌프(-28.0%)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대폭 감소

#### (6) 강원·제주권

- 강원: 생산 증가(3.2%), 고용 증가(6.6%), 수출 증가(7.4%)
  - 대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6.1%), 식료품 제조업(14.3%), 음료 제조업(17.1%)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47.4%) 제조업(3.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8%) 모든 부문의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11.1%)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응용기기(11.8%), 농산가공품(53.0%), 합금철선철 및 고철(250.1%)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제주: 생산 감소(-8.9%),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1.0%)
  - 주요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6.1%) 증가, 음료 제조업(0.6%)은 소폭 증가했으나, 식료품 제조업(-27.2%)의 큰 감소 등으로 지역 전체 생산이 감소
  - 제조업(3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8%)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수출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45.7%), 어류(27.2%)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실류(-6.6%), 산식물(-19.1%)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증가폭은 감소

###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강원	비금속 광물제품	-4.7	-4.6	-2.0	-4.8	4.3	22.8	-9.7	-6.6	-7.1	6.1
		식료품	5.1	-2.0	0.5	0.3	-8.0	11.9	-26.3	-0.2	13.3	14.3
		음료	7.9	-4.2	-6.6	-12.0	-8.8	-5.9	-13.5	-12.8	3.7	17.1
	제주	음료	5.4	-0.7	-0.7	-12.6	4.0	17.8	-9.8	-11.7	-9.1	0.6
		식료품	-6.3	-2.5	-12.1	-1.4	-8.7	7.5	-13.8	1.9	-18.4	-27.2
		비금속 광물제품	-12.8	-28.8	6.4	66.6	-16.2	-19.2	-6.3	2.3	6.2	6.1
고용	강원	농림·어업	92 (5.7)	82 (-10.9)	69 (-15.9)	75 (-27.2)	82 (-14.6)	82 (-14.6)	81 (-12.9)	82 (-7.9)	78 (6.8)	56 (47.4)
		제조업	56 (7.7)	57 (1.8)	55 (-3.5)	54 (-3.6)	55 (0.0)	55 (-1.8)	56 (1.8)	55 (3.8)	57 (5.6)	56 (3.7)
		SOC·서비스	658 (2.3)	649 (-1.4)	678 (4.5)	697 (7.6)	697 (5.8)	696 (4.8)	692 (5.0)	696 (4.0)	701 (3.4)	657 (4.8)
	제주	농림·어업	67 (13.6)	74 (10.4)	67 (-9.5)	68 (-9.3)	62 (-15.1)	62 (-12.7)	61 (-16.4)	65 (-14.5)	69 (-6.8)	65 (-11.0)
		제조업	12 (0.0)	12 (0.0)	14 (16.7)	14 (27.3)	15 (25.0)	15 (25.0)	15 (7.1)	16 (14.3)	17 (21.4)	17 (30.8)
		SOC·서비스	303 (0.7)	292 (-3.6)	302 (3.4)	306 (7.7)	302 (3.1)	304 (2.7)	303 (3.1)	305 (5.2)	307 (1.3)	307 (4.8)
수출	강원	2,088 (-0.4)	2,023 (-3.1)	2,728 (34.8)	659 (47.7)	718 (39.0)	217 (40.3)	249 (30.5)	261 (49.4)	238 (11.9)	220 (7.4)	
	제주	149 (-18.3)	155 (4.0)	228 (47.1)	60 (95.4)	58 (83.5)	20 (86.0)	19 (43.7)	19 (57.0)	23 (19.0)	23 (1.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코로나 19 이후 국내 정유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 1. 문제제기

- 국내 정유산업은 기존의 일반적 전망과는 달리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로 전환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석유제품의 수요 급감 및 회복 지연에 따른 불황의 장기화가 예상되었으나 국내 생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
  - 지난해 국내 정유 4사는 7조 원을 상회하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흑자전환에 성공
- 최근의 영업실적 반등은 일시적 특정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 검토가 필요
-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정유산업 현황 및 주요 글로벌 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정유산업의 전망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2. 정유산업의 현황

### □ 국내 정유산업 현황

- 국내 생산은 내수 및 수출 확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 2021년 4분기 국내 정유산업의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내수 및 수출은 각각 12.6% 및 17.3% 확대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로는 생산과 수출이 각각 1.2% 및 6.0% 감소한 수준이지만 내수는 1.3% 증가
  - 국내 정유사의 올해 2월 가동률은 약 90%로 2019년도 평균 가동률과 동일한 수준까지 회복

국내 정유산업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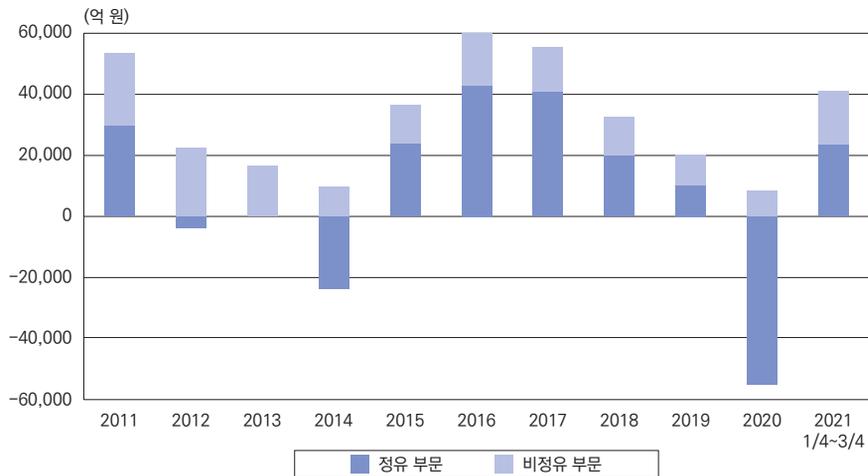
단위: 백만 배럴

	2019 1/4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생산	307	310	280	287	282	275	286	299	303
내수	241	224	219	217	217	225	230	238	244
수출	129	134	113	118	103	96	110	119	121

자료: Petronet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 국내 정유사의 경우, 코로나 발생 2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나타냄.
  - 국내 정유 4사는 정유부문에서 2020년 5조 5,1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지만 2021년 1~3분기에만 2조 4,16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 국내 정유 4사의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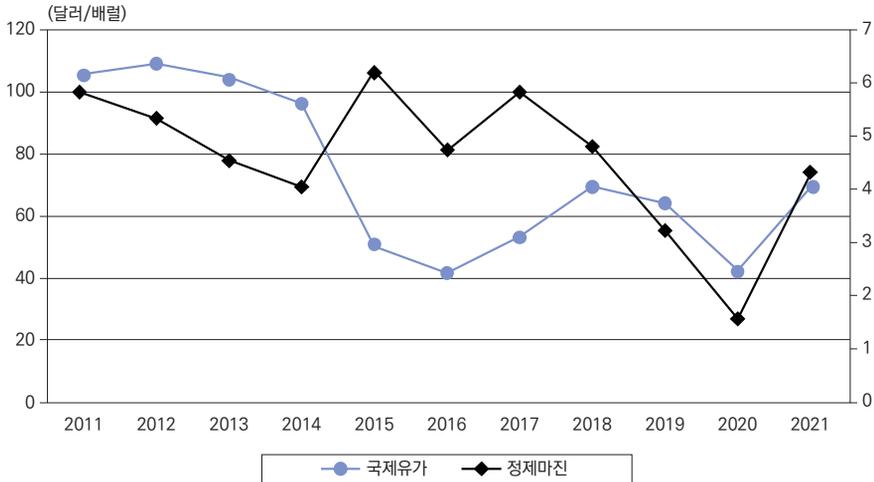


자료: DART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 □ 글로벌 정유산업 현황

- 국제유가의 급등 및 정제마진의 상승에 따른 글로벌 정유산업의 수익구조 개선
- 정유산업의 경우,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기업경영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지난해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원유의 재고평가 이익 확대는 정유사의 영업이익 증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20년 42.3달러에 그쳤던 국제유가는 지난해 69.4달러로 상승했으며 올해 2월에는 지정학적 요인까지 겹치며 91.3달러까지 급등
  - 석유제품 정제마진은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과 호주, 일본, 미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일부 정제설비 폐쇄로 인한 제한적 공급 확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
    - 2020년 1.54달러에 그쳤던 정제마진은 지난해 4.36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
    - 지난해 12월의 월평균 정제마진의 경우 8.24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3월 8.25달러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

###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추이



자료: 국제유가는 Petronet, 정제마진은 IEA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주: 정제마진은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을 의미.

### 3. 정유산업 전망

#### □ 글로벌 석유 수요

- 코로나19 변이의 재확산 우려 및 국가 간 이동제한 등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의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의 예상보다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글로벌 석유수요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EIA	IEA	OPEC	JPMorgan
2019	100.26	99.55	100.10	99.6
2020	91.82	90.83	90.98	90.0
2021	96.90	96.19	96.63	96.3
2022	100.46	99.53	100.79	99.8

자료: 한국석유공사(2021. 12), "2021년 국제석유시장 리뷰 및 2022년 전망".

- IEA, EIA 및 OPEC 등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관들은 모두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

#### □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

- 글로벌 정제시설 생산능력은 코로나19로 인한 설비 폐쇄가 신규 증설에 따른 공급 확대를 상당 수준 상쇄할 것으로 예상
  - IEA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정제처리량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8,160만 b/d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7,740만 b/d보다 4.8% 증가한 8,110만 b/d 수준으로 전망
  - OPEC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366만 b/d의 글로벌 신규 정제설비 증설이 추진될 계획이지만 약 249만 b/d의 기존 설비 폐쇄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
-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증설보다는 정제설비 가동률 회복에 따른 생산 확대가 정제마진 상승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 글로벌 석유제품 수급 전망

-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글로벌 수급 여건 및 고유가 추세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수익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신규 정제설비의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급 측면의 영향은 제한적
  - 한편 코로나19 변이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수요 회복 지체 및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는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 중기적으로는 업황 개선에 따른 신규설비 증설 및 가동률 상향조정으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
-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석유제품의 점진적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 글로벌 정유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확대

## 4. 정책과제

- 정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및 민간기업 투자 확대 노력 지속 필요
  - 정부의 원료용 증유에 대한 면세 지속 추진 및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 신규 적용, LPG 생산용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감면 제고 등을 통한 지원이 요구
  - 기업 측면에서는 고도화설비 확대, 원료수입처 다변화 및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이익 극대화 노력이 필요
-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수출다변화 시스템 구축
  - 지난해 6월 중국 정부가 경순환유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대중 수출물량이 7개월 평균 53.4% 감소
    - 대중 수출 감소분은 일부 정제설비를 폐쇄한 호주, 일본, 미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전환으로 대체
  - 향후 중국 정부의 정제설비 가동률 및 수출쿼터 제한 기조가 완화될 경우 아시아 역내 공급과잉이 재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체계적 수출다변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중·장기적인 석유제품 수요 감소 및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
  -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 확대 등 수요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바이오 연료 및 이퓨얼(e-fuel) 등의 석유제품 대체 제품생산을 위한 R&D 및 시설투자 추진
  - 전방산업인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 및 통합 강화를 통한 생산효율성 개선 및 사업다각화 추진
    - 향후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석유화학제품용 나프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정유·석유화학 복합시설 구축 및 원유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COTC(Crude Oil to Chemicals) 설비 등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한 산업경쟁력 유지 필요